

ART BUSAN MONTHLY

# 예술부산

2024·3  
VOL.225



우수콘텐츠잡지  
2023



사단법인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 부산예술회관은

공연장, 전시실, 회의실, 연습실을 실비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부산예술회관은

다양한 문화예술인들이 순수한 열정과 참여로  
대중과 소통하고 교류하며 만나는 곳입니다.  
문화적 향유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공연, 전시, 문화예술 전반을 아우르는 무한한 창작공간이 되도록  
다양한 즐거움과 행복 문화를 제공합니다.

### 부산예술회관 대관시설 면적

공연장	597.56㎡ (240석)		
회의실	87.62㎡	3층 전시실	122.57㎡
4층 전시실	116.32㎡	4층 연습실	102.12㎡
2층 연습실	94.05㎡	1층 연습실	52.62㎡
지하주차장	약 60대 주차 가능		

### 부산예술회관 홈페이지

[www.bsart.or.kr](http://www.bsart.or.kr)

대표전화 051) 631-1377

대관문의 051) 612-1376

공연장 / 전시장 / 회의실 / 예술아카데미 / 야외광장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1 제70회 중앙음악 전국콩쿠르, 오전 9시 20분, 010-3864-1928	2 경향음악콩쿠르, 오전 9시 30분, 051)462-7071
3 대성기업사_청춘낭만콘서트 오후 1시, 010-3869-1061	4 웰빙댄스 10시~11시30분(4층연습실)	5 댄스스포츠 및 라인댄스 10시~12시(4층연습실) 김정현의 팡팡노래교실 13시30분~15시30분(공연장)	6 가곡교실 12시~13시50분(2층연습실) 아랑고고장구 14시~15시30분(2층연습실)	7 댄스스포츠 및 라인댄스 10시~12시(4층연습실) 한국무용교실 14시~17시50분(4층연습실) 부산문인협회_부산문인대학 051)632-5888	8	9 피아트리앙상블 제5회 영아 티스트 콘서트, 오후 4시, 010-8652-6201 부산국악협회 정기총회 오후 2시, 051)644-5211
10 부산국제발레협회 _제1회 부산국제발레협회 국제무용콩쿠르, 오전 11시, 010-5159-5680	11 웰빙댄스 10시~11시30분(4층연습실)	12 댄스스포츠 및 라인댄스 10시~12시(4층연습실) 김정현의 팡팡노래교실 13시30분~15시30분(공연장)	13 김태희_동명대학교 인조네일 오 브제 아트, 010-4542-5322 가곡교실 12시~13시50분(2층연습실) 아랑고고장구 14시~15시30분(2층연습실) 실베아이TV 부산영남총국_시민 과 함께하는 와우 트로트 스타쇼 오후 1시, 010-9574-0034	14 김태희_동명대학교 인조네일 오 브제 아트, 010-4542-5322 댄스스포츠 및 라인댄스 10시~12시(4층연습실) 한국무용교실 14시~17시50분(4층연습실) 실베아이TV 부산영남총국_시민 과 함께하는 와우 트로트 스타쇼 오후 1시, 010-9574-0034 부산문인협회_부산문인대학 051)632-5888	15 김태희_동명대학교 인조네일 오브제 아트, 010-4542-5322	16 문 피아노 스튜디오_제3회 정기연주회, 오후 3시 30분, 051)926-1302
17	18 웰빙댄스 10시~11시30분(4층연습실)	19 댄스스포츠 및 라인댄스 10시~12시(4층연습실) 김정현의 팡팡노래교실 13시30분~15시30분(공연장)	20 가곡교실 12시~13시50분(2층연습실) 아랑고고장구 14시~15시30분(2층연습실)	21 댄스스포츠 및 라인댄스 10시~12시(4층연습실) 한국무용교실 14시~17시50분(4층연습실) 부산문인협회_부산문인대학 051)632-5888	22	23 듀오연주팀_4인음악회 오후 5시, 010-2558-4228
24	26 웰빙댄스 10시~11시30분(4층연습실)	26 댄스스포츠 및 라인댄스 10시~12시(4층연습실) 김정현의 팡팡노래교실 13시30분~15시30분(공연장)	27 가곡교실 12시~13시50분(2층연습실) 아랑고고장구 14시~15시30분(2층연습실)	28 댄스스포츠 및 라인댄스 10시~12시(4층연습실) 한국무용교실 14시~17시50분(4층연습실) 부산문인협회_부산문인대학 051)632-5888	29	30 사)한국향토음악인협회 부산광역시지회 _제7회 용두산 전국가요제 오후 1시, 051)949-2468
31 사)한국향토음악인협회 부산광역시지회 _제7회 용두산 전국가요제 오후 1시, 051)949-2468						



# ART BUSAN MONTHLY VOL.225

## 2024 MARCH 3

### CONTENTS

#### 권두칼럼

06 오늘날 예술의 지향점 \_ 제종모

#### 예서제서

- 08 부산예총 정기총회 \_ 제27대 회장 오수연 당선
- 10 제18회 부산미술협회 수채화분과전
- 12 부산민화협회 제11회 정기전
- 14 2024 부·울·경 연극인체육대회
- 16 부산현대미술관 - <이것은 부산이 아니다: 전술적 실천> \_ 김지연
- 20 범어사 성보박물관의 특별한 행보  
부산·범어사의 불교미술 \_ 정은우
- 24 카린갤러리 - 오늘의 신화 *Mythologies of today*
- 26 아리안갤러리 - 김정명·김원백 초대전
- 28 이지투게더 '농담 건네기'
- 30 감동진갤러리 - 북구 노을 및 야경사진전



#### 표지\_김지영

국내외 개인전 및 아트페어 26회, 단체전 500여 회  
단국대학교 조형예술학과 박사과정 수료, 성신여자대학교 동양학과 대학원 졸업, 신라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졸업  
현) 신라대학교 현대미술전공 초빙교수

Trace-행복찾기\_장지, 수간채색, Silver foil, 50×50cm



**포토에세이**

32 빨간 튜립이 있는 풍경 \_ 김석중

**時雨일기**

36 망월 望月 \_ 문경희

**인물포커스**

40 피아니스트 최민경 \_ 정지영

**예인탐방**

42 사진가 정쌍환 \_ 이효민

**예술가열전 218**

44 시인 김석규 \_ 노옥분

**손으로 쓴 문학**

48 그 골목 \_ 이용철

**들어다보기**

50 국악/ 김남순의 '김병호류 가야금산조' \_ 김동녘

52 문학/ 김초성 수필집 『풀벌 일지』 \_ 김정화

54 영화/ <이어지는 땅> \_ 김민우

56 음악/ 해운대 음악제 '피아노 앤드 프렌즈 Piano and Friends' \_ 이해영

**기획연재**

58 예술치료Ⅲ - 치매 노인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통합예술치료 \_ 김소형

62 즐거운 희곡 읽기Ⅰ - 배삼식, 『화전기』(민음사, 2020)를 읽고 \_ 김영희

**열린마당**

66 연극에서 무대감독의 역할 \_ 이성규

70 예총-전시-공연 뉴스

80 신간 안내

82 메세나 광장 & 정기구독회원 모집

2024년 3월 동권 225 <http://www.artpusan.or.kr>

1997년 10월 15일 정기간행물 등록(2011년 8월 31일 변경등록번호 부산라-01255)

발행일\_ 2024년 2월 27일 발행처\_ 사단법인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주소\_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78 부산예술회관

전화\_ 051)612-1372 팩스\_ 051)631-1378 이메일\_ artbusan1997@naver.com

발행인 겸 편집인\_ 오수연 편집고문\_ 이봉두(건축가회), 김인숙(국악협회), 김감용(무용협회), 이석래(문인협회), 최장락(미술협회), 강종관(사진작가협회),

이정남(연극협회), 안규성(연예예술인협회), 서영조(영화인협회), 권성은(음악협회)

편집장\_ 정지영 편집기자\_ 이효민 디자인\_ 두손컴 제호\_ 김중문

※ 본지는 부산광역시로부터 발간비 지원을 받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부산예총의 의사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오늘날 예술의 지향점

글\_ 제종모 전 부산시의회 의장

최근 부산의 사진전문갤러리에서 2024년 파리올림픽과 패럴림픽Paralympic을 기념하는 사진전이 열렸다. 프랑스 패럴림픽 챔피언 2인과 헌신적인 자세로 스포츠에 임하는 선수들, 부산 출신 장애인 운동선수 2명의 모습을 담은 사진전이였다. 장애와 편견을 딛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며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의 내면까지 담아낸 컬러 그리고 흑백 사진은 관람객들에게 스포츠 경기를 '직관'하며 얻는 것 이상의 감명과 파장을 느끼게 했다.

사실 대부분이 잘 모르고 있을 뿐, 패럴림픽이 올림픽과 '나란히'para 열리는 의미를 얻고 역대 최고의 장애인 손님을 맞이한 행사로 기록된 게 우리나라의 88올림픽 때다. 당시 세계인에게 전달된 감동은 이제 사진 속에만 남아 있다. 그런데 이번 사진전을 보며 스포츠가 순간의 경기, 순간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진이라는 예술 매체를 통해 한 번 더 생명력을 얻는다는 생각과 확신을 얻었다. 예술이 할 수 있는 역할, 즉 감정과 경험을 전달 및 공유하고 사회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을 해냈다는 것이다.

1839년 프랑스 다게르에 의해 '사진술'이 발명됐다. 그리고 "사진이 예술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도 생겨났다. 사진은 단순히 현상의 재현이고 사진가는 사진을 만드는 기술자라는 것이다. 그러나 영국 런던에서 1851년 '사진대전Great Photography Exhibition'이 열리고, 1862년 프랑스 파리고등

---

법원에서 “사진은 분명한 예술적 표현 수단이며 사진의 저작권도 창작품으로 인정된다”라는 판결을 내려 사진도 예술작품이라는 공식적인 인정을 받게 됐다. 또한 로베르 드마시(Robert Demachy, 1859~1936)부터 랄프 깁슨(Ralph Gibson, 1939~)까지 여러 사진가의 노력으로 사진의 예술적 수준이 높아지면서, 다른 예술이 그렇듯 작가마다 천착하는 주제가 있고 표현 방식이 있으며 그 경향도 여러 갈래로 나뉘는 오늘에 이르렀다.

우리 부산은 리얼리즘 사진 미학을 개척한 정인성(1911~1996)과 임응식(1912~2001) 사진가, 대표적인 1세대 다큐멘터리 사진작가로 불리는 최민식(1928~2013) 사진가 등이 활동하며 사진 예술계가 발전해 왔다. 가까운 과거에 비해서도 최근 들어 사진이 예술로 자리를 잡았다고 여기는 건, ‘사진문화’라는 말이 낯설지 않다는 점, 각종 사진전문전시장이 개관해 운영 중이라는 점 등에서 알 수 있다. 미술 갤러리에서 별도로 사진전을 여는 게 아니라 사진전문전시장이 생겨나고 관심을 끌고 있다는 자체가 고무적이다.

핸드폰 카메라가 비약적으로 발전해 ‘스마트폰 사진 공모전’이 열릴 만큼 사진의 접근성이 좋아진 점도 최근의 특징이다. 한 명의 사진가로서 나는 앞서 언급한, 사진이 예술로 인정받아 온 과정과 뛰어난 사진예술가들의 성과와는 별개로, 이제는 예술로서의 사진과 손쉽게 촬영하는 사진을 굳이 나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사진예술의 발전을 등한시해서가 아니라 소위 상위(고급)문화와 하위(저급)문화로 나뉘는 경계하기 위해서다. 예술가의 가난을 당연시하면서도 예술은 저 높이에 있는 것, 상류층이 향유하는 것이라 여기던 시절은 끝났다.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 혹은 뉴노멀(New Normal) 시대에 생활예술의 개념과 활동들이 사회 구성원의 곁에 깊숙이 들어온 것이 이를 증명한다.

사진예술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예술 분야에서 생활예술로의 전환, 다른 분야나 장르와의 융합이 시도되고 있다. 피사체를 담아낸다는 사진의 특성상 어쩌면 당연한 거지만, 서두에 언급한 사진전 또한 체육대회를 사진예술과 융합, 승화한 것이라 봐도 무방할 것이다. 과거와 달라진 오늘날 예술의 지향점은 여기에 있다고 본다. 해당 예술 분야가 지닌 본래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무엇으로도 변화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감명을 줄 수 있는 것. 사진이 예술로서 자리 잡는데 접근성 증가를 통한 사진 인구 확대가 미친 영향, 즉 양적 확장이 질적 확장으로 부분 작용한 것처럼 ‘예술’ 그 자체의 문호를 활짝 연다면 우리 예술계의 미래는 한층 밝아지지 않을까.

사진으로 보는

# 부산예총 정기총회

2024. 2. 22. 오후 5시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 2020년 제26대 예총 회장으로 취임했을 때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하고자 했던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임기 동안 11년의 행정 경험을 살려서 부산예술문화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2024 정기총회 및 제27대 임원 선거가 2월 22일 열렸다. 특별공로상 시상, 공로상 시상예 이어 ▶2023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보고 승인의 건 ▶2024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의 건 ▶임원 선거를 위한 임시의장 선출(안) 등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통과됐다. 이어진 임원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한 대의원 100명 가운데 과반이 넘는 54표의 지지를 얻으면서 오수연 현 회장이 부산예총 제27대 회장으로 당선됐다(박태원 후보 34표, 이정남 후보 12표). 오 당선인은 ‘폐교와 공공건물을 활용한 예술창작 공간 조성’ ‘노후화한 부산예술회관 증개축’ ‘국제 문화예술교류 플랫폼 추진’ 등을 약속했다. 감사에는 조성범, 신호국이 각각 선출됐다. 이날 현장을 사진으로 살펴본다.

/ 편집실



안규성 임시의장과 공로상 수상자 단체사진(부산건축가회 이주영, 부산국악협회 김경수, 부산문인협회 손순이, 부산미술협회 정인성, 부산사진작가협회 홍순희, 부산연극협회 서승우, 부산연예예술인협회 성준호, 부산영화인협회 박성호, 부산음악협회 김원명, 부산꽃예술작가협회 오미숙, 부산차문화진흥원 조수옥, 부산무용협회 이경화(대리수상))

# 제27대 회장 모수연 당선



선관위원단이  
안내 사항을 전하고 있다.



후보자 소견 발표는 7분 이내,  
기호 순서로 진행됐다.  
(왼쪽부터)  
기호 1번 박태원 후보,  
기호 2번 이정남 후보,  
기호 3번 오수연 후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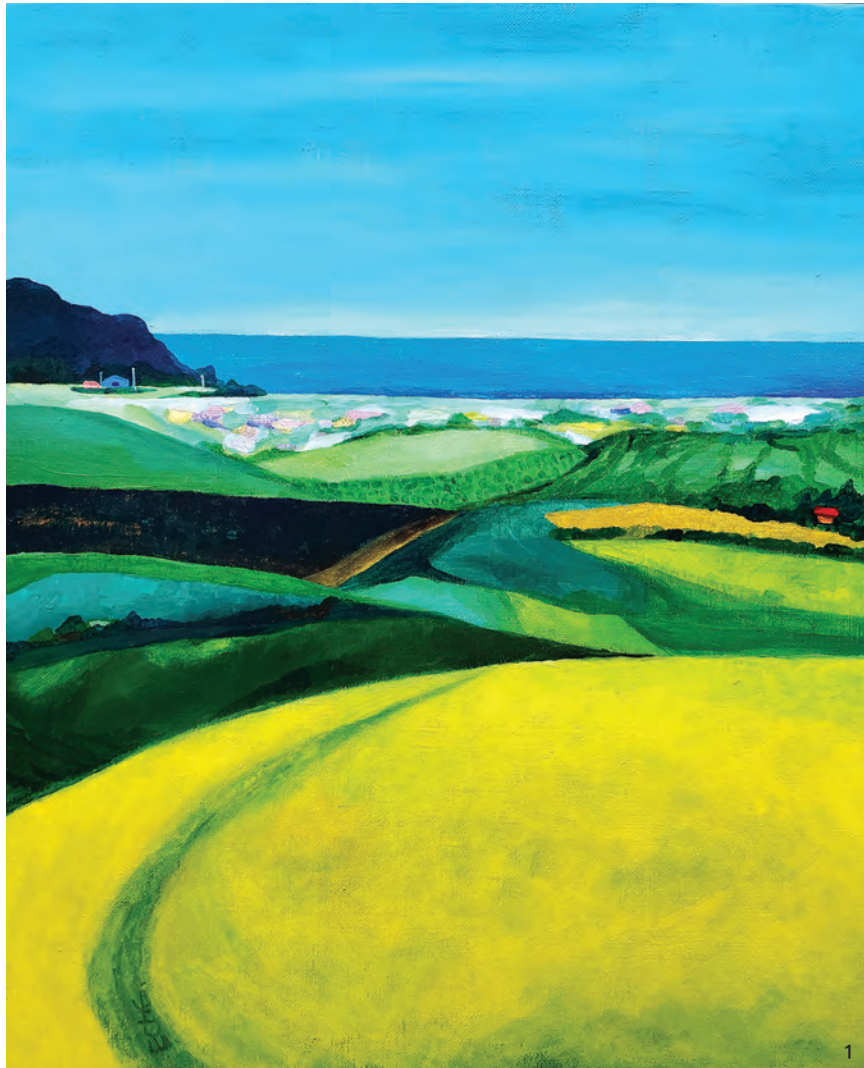
대의원들은 신분증 제시 후 날인해 투표용지 교부권 수령,  
교부권과 투표용지를 교환해 기표소에서 투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의 순서로 투표했다.  
참관인들의 참관 속에 선관위원들이 개표작업을 했다.



안규성 임시의장과 특별공로상 수상자 단체사진  
(부산미술협회 회장 박태원, 부산예총 감사 조성범·표응석)



(왼쪽부터) 조성범 감사, 정동민 선관위 위원장, 오수연 당선인,  
신호국 감사가 당선증과 꽃다발을 안고 사진을 찍고 있다.



제18회 부산미술협회 수채화분과전  
**물의 하모니**

2024. 4. 1. ~ 6. 부산시청 제2·3전시실

부산미술협회 수채화분과(회장 이순이)가 4월 첫째 주, 18번째 전시를 개최한다.  
개막식은 4월 1일 오후 5시 반에 열린다.



- 1 어현숙\_inspiring\_breath, Acrylic on paper, 53.0×45.5cm
- 2 조규철\_흔적, Watercolor on paper, 40.9×50.0cm
- 3 정현주\_눈내리는 거제도, Watercolor on paper, 45.5×37.9cm
- 4 양홍근\_자작나무 23-5, Watercolor on paper, 53.0×45.5cm

수채화분과전은 2007년 제1회를 시작으로 부산과 타지역 작가, 회원과 비회원 간 교류의 장이자 수채화의 경향을 폭넓게 살펴보는 기회가 되어주고 있다. 올해는 타지역 초대작가(대구 강옥경·최영순, 제주도 김원구, 서울 오시수·윤정단, 포항 김엘리, 경북 송재진)와 부산 초대작가(이상순·조규철·양홍근·안금주·조귀선·송승호·정인성·김화주 등) 20여 명을 비롯해 회원 132명, 비회원 60명이 작품을 출품해 풍성한 전시를 펼친다.

전시명은 '물의 하모니(Water of Harmony)'다. 수채화의 '물맛'을 자유자재로 표현한 독특하고 독창적인 작품들은 물과 색의 청량감을 줌과 동시에 마른 대지를 적시는 단비처럼 관람객의 마음에 스며들고자 한다. 이순이 회장은 "순수한 열정으로 수채화의 중요성을 토론하고 그 맥을 꾸준히 이으며 부산을 대표하는 수채화 단체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했다.

문의\_010-5528-3736 / 편집실

| 예서제서



## 제6회 대한민국 어린이 민화초대전과 함께하는 부산민화협회 제11회 정기전

2024. 3. 11. ~ 16. 부산시청 제2·3전시실

민화(民畵)는 민중이 그린 가장 한국적인 그림이라 일컬어진다. 어딘가 친숙하고 유머러스한 호랑이부터, 꽃이나 새, 곤충 등을 그려 장수와 복을 기원하거나 등용문을 상징하는 잉어를 소재로 하기도 한다. 민화의 저변확대를 위해 2013년 창립, 2014년 창립전을 시작으로 매해 정기전을 개최해 온 부산민화협회(회장 강명화)의 제11회 정기전이 3월 11일부터 16일까지 열린다. 2019년부터 시작한 대한민국 어린이 민화초대전도 6회째를 맞아 함께한다.



- 1 강명화\_도원행주도
- 2 최운영\_희망과 함께
- 3 성봉애\_화조도
- 4 고경숙\_낙도(청룡)
- 5 박계연\_청룡도

9명의 작가로 시작했지만 현재 회원 수는 85명에 이른다. 예술계가 침체했던 코로나 시기에도 환경 살리기 캠페인 등 시대에 걸맞은 활동을 펼치고 작년부터는 ‘창작 민화의 이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는 등 ‘민화의 저변확대’라는 목표를 위해 노력한 덕이다. 제10회 정기전에서 회원 공동 주제로 ‘책가도’ 작품을 출품한 것에 이어, 올해 정기전의 공동 주제는 ‘청룡’이다.

고경숙 작가의 「낙도(청룡)」는 물고기가 용이 되어 힘차게 튀어 오르는 모습을 태극의 음양(陰陽)을 떠오르게 하는 붉고 푸른색의 대비로 표현했다. 박계연 작가는 상서로운 분홍빛 하늘에서 구름 속을 노니는 청룡의 모습을 담은 「청룡도」를

선보인다. 첩첩이 섬세한 산수를 녹색과 분홍색으로 채색해 아름다운 무릉도원을 표현한 강명화 작가의 「도원행주도」 속 물길을 노 저어 가는 어부의 모습은 유유자적해 보인다. 길상을 상징하는 꽃과 새가 어우러진 성봉애 작가의 「화조도」, 꽃·거북·학·복숭아 등 저마다 의미가 있는 소재 위에 세 마리 말의 역동성을 더한 최운영 작가의 「희망과 함께」 등도 눈길을 끈다.

강명화 회장은 “6회를 맞는 어린이 민화초대전과, 청룡을 주제로 한 공동작품이 펼쳐지는 이번 정기전에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문의\_010-8120-7727 / 편집실

## 2024 부·울·경 연극인체육대회

# 함께 우정을 나누다

2024. 2. 24. 오후 1시 부경대학교 대운동장

부산연극협회(회장 이정남) 주관으로 '2024 부·울·경 연극인체육대회'가 2월 24일 오후 1시부터 부경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열렸다. 부산연극협회, 울산연극협회, 경남연극협회에서 참가한 100여 명의 연극인과 예술인들의 거친 호흡과 함성이 입춘은 지났지만 찬공기가 남아 있는 운동장을 가득 채웠다.





‘부·울·경 연극인체육대회’는 지난 코로나 기간 교류가 힘들었던 부산·울산·경남 예술인의 화합과 소통을 위한 교류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그 출발로 지난해 2월, 경남연극협회 주관으로 통영에서 첫 번째 체육대회가 개최되었다. 모름지기 처음은 낯설지만 한 걸음 내딛고 나면 한결 수월해지는 법, 무대 위에서 보다 더 활기차게 몸으로 부딪치면서 부산·울산·경남이라는 지역적 경계와 세대 간 벽은 허물어지는 듯했다.



첫 단추를 성공적으로 꿰낸 부산·울산·경남 지역 연극인들은 소통과 결속을 지속하기 위해 해마다 체육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그 두 번째 행사가 ‘2024 부·울·경 연극인체육대회’였다. 내년에는 울산연극협회 주관으로 울산에서 체육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2024 부·울·경 연극인체육대회’, 그 뜨겁고 활기차고 관람객마저 재밌게 만들었던 현장을 사진으로 만나본다.



/ 편집실



## 〈이것은 부산이 아니다: 전술적 실천〉 ‘그 풍경은 늘 습관적으로 하듯이’를 중심으로

2024. 2. 24. ~ 7. 7. 부산현대미술관 1·2층 전시실 및 야외정원

부산현대미술관에서 〈이것은 부산이 아니다: 전술적 실천〉전이 열린다. ‘이것은 부산이 아니다’라는 명명은 마그리트의 회화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가 이미지와 언어의 불일치로 제기했던 모순을 의식한 것일 터. 전시 기획자에 따르면 그는 기존의 담론을 수용하면서도 그 빈틈과 맹점을 이용한다는 의미에서 전시의 제목에 ‘전술’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밝히고 있다. 일곱 개의 파트로 나뉜 ‘전술’들을 모두 알지는 못하기에 이 글은 전시에 대한 스케치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그 가운데에서 국내·외의 독립영화를 상영하는 네 번째 파트, ‘그 풍경은 늘 습관적으로 하듯이’의 몇몇 작품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 수는 있겠다.

개별 영화들이 갖는 저마다의 세계는 가뜩이나 정보, 통신, 기술, 교통 등이 극도로 발달한 이 시대에 지역의 구분으로부터 생성되었다기보다는, 각자의 관심사와 그들 외부의 세계 사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마땅할 것이다. 하지만 이 말을 완전히 옳다고도 할 수 없다. 연출자들이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장소를 배제한 채로 생각할 수 없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하는 까닭이다. 부산의 특정한 장소나 사람, 그와 관련된 주제를 다루는 영화야 당연히 그 범주 안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어쩌면 무심히 스쳐 지나갈 수 있을 법한 하나의 숲, 혹은 영화에 투영된 정서, 태도... 작품 어디에 선가 그 흔적을 발견하는 것도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이번 전시의 상영작 20여 편은 개인이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얼마 되지 않으므로, 이 기회에 상영 공간을 통해서 그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건 환영할 만한 일이다. 작품을 상영하는 이들 중 부산에서 활동했거나 현재 활동 중인 사람들

은 다큐멘터리 연출자의 경우 김영조, 김지곤, 오민욱, 박지선, 신나리 정도로 꼽을 수 있다. 극영화 연출자는 김수정과 윤지혜와 같은 이들이다. 동시대에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했거나, 하고 있다는 것 이외에 그들은 하나로 묶이기 어렵다. 저마다의 뚜렷한 작품세계를 이미 구축했거나, 구축해 가고 있는 연출자들이기 때문이다. 모두가 소개할 만하지만, 지면의 제약으로 사뭇 아쉬움을 느낀다. 큰 규모의 상영에서 단 몇 편의 추천작만으로 그들의 작품세계를 조망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 또한 미리 밝히며,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상영을 통해 부산에서 활동하는 연출자들이 있다는 것을 더 많은 관객이 알게 되기를 바란다. 나아가 이 연출자들이 빚어낸 세계를 확인해 보며 다양한 영화에 마음을 여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담아서 두 편의 다큐멘터리와 두 편의 극영화를 소개한다.



### 〈리틀보이 12725〉

연출자 김지곤은 산복도로에 살고 있던 할매들이 재개발로 떠나는 과정을 〈할매〉(2011), 〈할매-시멘트정원〉(2012), 〈할매-서랍〉(2015) 연작에 담아내며 다큐멘터리 작가로 입지를 굳혔다. 한국에서 원자폭탄 피해자 2세임을 처음으로 밝힌 인권운동가 김형률의 삶을 다룬 영화의 제목 '리틀보이'는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이름이기도 하고, 짧지만 고귀한 생을 살다 간 김형률을 이르는 것이기도 하겠다. 영화는 원자폭탄의 발진기지 티니언에서 출발해, 김형률 어머니의 생가가 있는 곳이자 폭탄이 떨어진 히로시마, 나가사키, 당시 원폭 피해를 입은 조선인 상당수의 출신지 합천, 김형률이 살았던 부산 일대에서 역사와 사람에게 남은 흔적을 찾는 데 몰두한다. 인권운동가로 활동한 김형률의 업적을 헤아리는 대신에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청하고, 그가 남긴 일기와 시를 통해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그려



보는 여정이라고도 바꾸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평범한 삶을 꿈꾸며 야학에서 배움을 이어갔고, 역사와 사회가 개인들에게 남긴 상처를 응시하며, 김형욱은 있는 힘껏 뜨겁게 살았다. 그 12,725 일의 시간을 더듬는 시도와 같은 이 영화는 지금까지 김지훈이 발표한 작품 가운데 단연 으뜸이라 생각한다.



〈전설의 여공: 시다에서 언니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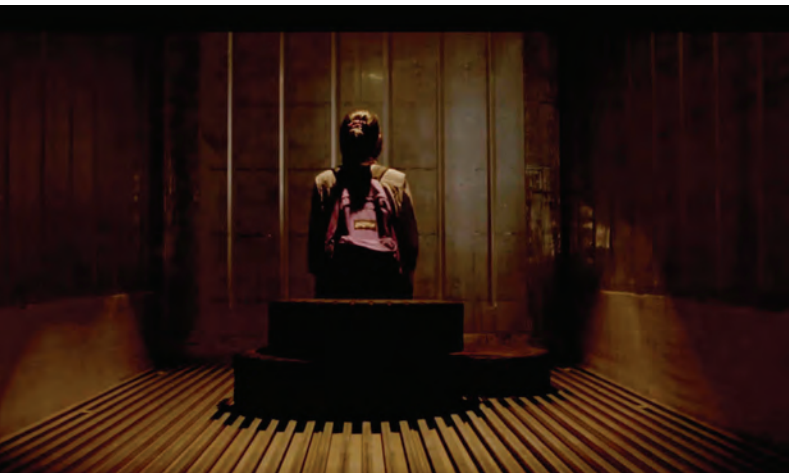
박지선의 다큐멘터리가 기록하려는 건 현상이나 사건의 원인과 추이, 결과를 분석하는 일과 거리가 매우 거리가 멀다. 그의 첫 번째 작품 〈전설의 여공: 시다에서 언니되다〉(2011) 이후 발표한 신작 〈마녀들의 카니발〉(2022)에서도 기시감이 느껴지니, 그것은 박지선의 변하지 않는 태도일 것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의 다큐멘터리는 인물 없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는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을 뜻한다. 영화는 그들의 구술에 이목을 집중한

다. 그것은 언제나 스타일과 규범에 앞서는 원칙이다. 공장에서 시다(보조원)로 경력을 시작한 십대 소녀들은 기능공이 되어 산업역군으로 부산과 한국의 경공업업을 이끌었다. 그러나 관리자, 기업, 사회는 그에 걸맞은 처우나 인식으로 이들을 대하지 않았다. 오랜 동료들이 모여 밥 한 끼 먹고, 거실에 앉아 기억 너머의 소녀 시절과 젊은 시절을 떠올리는 사이에, 그들 삶의 질곡을 따라 자연스럽게 당시 여성 노동자의 실태, 권리와 인권의 변화 추이, 경공업의 성쇠가 녹아 나온다. 어떤 형식미로도 묘사해 낼 수 없는 진한 삶들, 그 앞이 박지선의 카메라가 놓이는 자리다.



〈파란입이 달린 얼굴〉

〈파란입이 달린 얼굴〉, 이 작품 하나만으로도 연출자 김수정의 이름은 기억하기에 충분한 것이 된다. 느긋한 전개와 세심한 관찰, 배우들의 연기가 돋보이는 이 작품은 스크린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한여름에도 한기를 느낄만한 날카로운 질문들을 관객에게 던진다. 서영(장리우)에게는 기약 없이 투병 중인 어머니가 병원에 있고 세상 물정 모르는



장애인 오빠(진용욱)가 하나 있다. 그는 오래전부터 이 가족의 부양자였을 것이다. 서영의 얼굴에는 표정이 없고 그는 별달리 말도 없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남들이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사람이다. 생활을 이어가기에는 턱없이 모자라지만 그나마도 버티려면 일자리를 유지하며 빚을 갚아야 한다. 그런 일념 외에 서영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한다. 그는 선뜻 호의를 품기 어렵고 이해 하기도 힘든 인물이다. 하지만 영화는 관객을 믿는다. 우리가 인물에게 마음을 내줄 수 있도록 그에 대해 일일이 친절한 설명을 달지 않고 거리를 둔 채 상황을 관망하려 한다.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 없을 것 같은 삶이 나빠지고, 서영이 살아남기 위해 선택하는 길은 지독하다. 하지만 인물의 행태를 가만히 바라보다 보면 어느새 그가 지나온 과정을 온전히 한 개인의 과오로 치부하기 어려워진다. 영화가 불편해지는 지점 중에 하나일 것이고, 이는 영화를 쉽게 잊지 못하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 〈길고 재미없는 영화가 끝나갈 때〉

여자(정지민)와 남자(이시형)는 함께 영화를 보고 나와서 이별한다. 여자는 도시 이곳저곳을 헤매고 걸음이 닿는 곳들은 그의 마음처럼 스산하고 황량하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길고 재미없는 영화가 끝나갈 때〉를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인물은 그가 보던 영화 속 영화에 나오던 공간을 거닐고, 또 다른 영화의 촬영장을 지나가고, 영화 속 인물을 만난다. 하지만 이 설명 또한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적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 얼마만큼이 영화 속의 현실이고 또 얼마만큼이 환영인지 구분하기 어렵도록 모호하게 섞인 시간과 공간, 그



리고 사람들이 교란을 일으키며 이 영화를 특별하게 만들지만, 한편으론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일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영화를 본다는 건 기승전결의 흐름을 따라 연쇄되는 사건들을 조합하는 일이다. 하지만 이 영화는 사건과 대사를 거의 삭제해 버리고 그 자리에 고심해 세 공해 났을 이미지와 정서들을 심는 선택을 한다. 그에 동의하고 영화의 여정을 따른다면, 이 영화가 현실과 상상 중에 그 어디에 분류하더라도 어색하지 않은 순간을 목격하고, 팝진성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보는 사람을 불러들이는 이미지들의 매혹을 경험할 수 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에도 슬픔과 고독이 스며 있는 것 같고, 누군가들의 드리워진 그림자들마저도 모종의 신호인 것처럼 보일 것이다. 때로는 여기에 이르기까지 연출자 윤지혜가 자양분으로 삼았을 고전 영화들이 함께 떠오르기도 한다. 영화보기를 몹시 좋아하는 사람이 만든 야심만만한 장면 데뷔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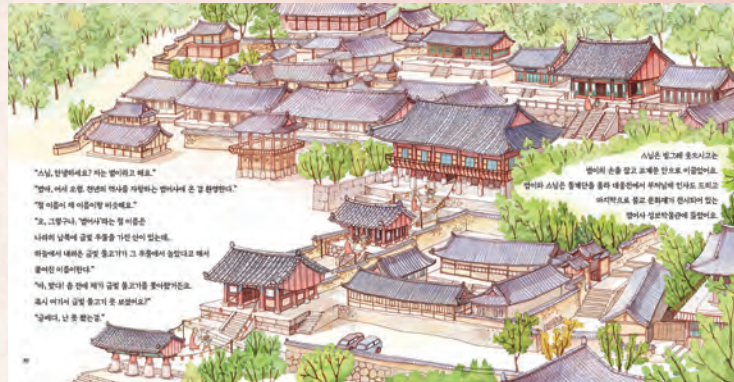
글\_김지연 영화평론가 / 사진\_부산현대미술관 제공

## 그림책 『금빛물고기의 비밀-삼국유사 편』 등 발간 범어사 성보박물관의 특별한 행보



금정총림 범어사 성보박물관(주지 정오스님, 이하 성보박물관)의 행보가 돋을별처럼 아름답다. 성보 박물관은 지난해 부산시 사립박물관 지원사업 및 국립진주박물관 출판 협력사업을 통해 4권의 간행물을 발간했는데, 불교문화뿐만 아니라 지역사를 아우른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먼저 부산시 사립박물관 지원사업으로 『삼국유사』(범어사 본)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어린이와 외국인이 공감할 수 있는 국문도록·영문도록·어린이 그림책 등을 발간했다. 『삼국유사』는 대한민국 국보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 목록에 등재된 기록유산이다. 성보박물관은 유네스코 등재를 기념해 특별전 '삼국유사: 기록하다'를 개최하고, 전시를 기반으로 국문도록 『천년의 기록, 범어사 삼국유사』와 영문도록 『Samguk Yusa(Memorabilia of the Three Kingdoms): Memory of the World』, 그림책 『금빛물고기의 비밀-삼국유사 편』을 제작했다.



국문도록에는 주보돈(경북대학교), 채상식(부산대학교), 최영호(동아대학교) 등 학계 전문가들의 논고를 실어서 『삼국유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도왔다. 영문도록은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의 기록유산의 가치에 공감하고, 삼국유사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 특히, 그림책 『금빛물고기의 비밀』은 범어사 성보박물관에서 처음 제작한 어린이 대상 도서다. 범어사 창건 설화를 모티브로 주인공 ‘범이’가 금정산 정상에 금빛 샘물(金井)에서 내려온 금빛 물고기(金魚)를 쫓아 범어사를 탐방하면서 삼국유사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되는 스토리이다.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밝은 색상과 아기자기한 그림들이 우리 역사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불러온다.

『범어사 역사를 담다, 닦다』는 국립진주박물관 출판 협력 사업의 결실이다. 범어사의 역사가 부산·경남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한다는 의미로, 범어사의 창건부터 근대까지를 담고 그 속에서 우리나라 역사를 이야기한다. 범어사의 석조문화재, 건축문화재, 불화와 불상 등 대표적인 문화재들을 수록하고 ‘1부 역사를 창건하다, 2부 역사를 퍼트리다, 3부 역사를 일으키다, 4부 역사를 움직이다’로 구성했다.

여기에 학계 전문가들의 특별논고로 무게감을 더했다. 서치상 부산대학교 건축학과 명예교수는 「범어사의 역사와

문화』에서 범어사의 창건 설화부터 임진왜란 이후 사찰의 재건, 간경소의 존재 여부 등 범어사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재조명했다. 정은우 부산시립박물관장은 「부산·범어사의 불교미술」에서 부산지역의 박물관과 사찰에 남아 있는 불교미술의 분포와 현황을 개괄하고, 범어사를 중심으로 주요 불교 조각의 특징과 중요성을 정리했다. 특히, 김동철 부산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는 「임진왜란과 부산, 그리고 범어사」에서 임진왜란과 부산지역 전투, 그 속에서 범어사의 역할을 규명했다. 또한, 지금까지 학계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국조전망인시식책자(國朝戰亡人施食冊子)』를 부산지역 전쟁사 관점에서 재조명하였다.

정오스님은 “어린이 그림책 제작 등 새로운 시도와 임진왜란과 한국전쟁 등 전쟁에서 범어사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 것은 앞으로 박물관이 나아갈 방향성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로 계속해서 후속 연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중이 공감하는 기획으로 대중과 소통하는 박물관이 되겠다”고 전했다.

그림책 『금빛물고기의 비밀-삼국유사 편』 등 발간물은 성보박물관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문의\_051)508-6139 / 편집실

## 『부산·범어사의 불교미술』

불교미술은 부처의 생애와 진리를 담은 교리와 불자들의 신앙, 나아가 불교의 사상과 역사 등 불교적인 소재를 조형화한 종교미술이다. 우리가 사찰에 갔을 때 볼 수 있는 화려한 색채의 그림이나 조각을 비롯한 모든 구조물이 불교미술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삼국시대부터 불교를 수용해 온 우리나라는 전국의 사찰과 석탑에 불교미술이 산재해 있다. 정은우 부산시립박물관장은 논고 「부산·범어사의 불교미술」에서 범어사를 중심으로 부산지역 불교미술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정리했다. 이하 내용은 「부산·범어사의 불교미술」의 맺음말을 인용한 것으로 전문은 범어사 성보박물관이 펴낸 『범어사 역사를 담다, 닦다』에서 볼 수 있다. (편집자 주)



범어사 원효암 목조보살좌상과 내부모습 및 후령통(1674)

부산지역 불교미술의 역사성과 정체성은 사찰에 전하는 유물에서 찾을 수 있다. 중심 사찰은 범어사와 그 말사와 암자들이며 시대적으로는 조선시대에 집중되어 있다. 통일신라시대 화엄종 사찰로 창건된 범어사가 임진왜란으로 소실되면서 큰 변화를 겪었기 때문이다. 전쟁의 최전선에 위치한 부산, 그리고 범어사는 큰 피해를 입었으며 전쟁 후 중창불사가 시작되었다. 그 내력이 중창불사가 이루어진 범어사의 주전각인 대웅전, 비로전, 미륵전, 관음전, 그리고 그 내부에 봉안된 17~18세기 불상을 통해 설명된다. 범어사에 전하는 불상은 가장 이른 작품인 17세기부터 20세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제작연대나 상을 만든 장인의 이름이 밝혀진 상은 대웅전과 관음전에 주존불로 봉안된 불상뿐이다. 각기 복장발원문과 대좌에 쓰여진 묵서를 통해 회장과 진열이 제작하였음이 확인된 바 있다. 즉, 범어사의 불교조각은 대웅전 불상을 제작한 조각승 회장, 관음전 불상에 참여한 진열 등이 불상 조성을 비롯하여 중수, 개금을 비롯한 범어사 재건 불사에 깊이 관여했던 장인이자 승려였음을 알 수 있다. 20세기에는 조각승 완호, 병혁 등이 활동했으며, 이들은 불상, 불화, 개금 및 중수 등 광범위한 불사에 참여하게 된다.

범어사는 대웅전을 축으로 비로전과 미륵전이 있으며 대웅전 우측에 관음전 등이 있다. 비로전은 화엄종의 주불을 모신 전각으로 원래의 주불전이며, 미륵전은 2층 전각이었으나 소실되어 다시 중창된 전각이다. 이 전각에 봉안된 비로자나불상과 미륵불상은 아마도 범어사의 역사를 새로 완성할 중요한 불상으로 앞으로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비로자나불상은 1722년 중수되면서 얼굴 모습이 바뀌어 중수에 대한 개념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중수를 진행한 조각승 진열은 1565년 향엄이 만든 목포 달성사 목조지장보살좌상을 1719년 중수하면서 상호를 바꾼 내력이 있다. 따라서, 범어사의 주요 문헌 기록인 「중수도금기(重修塗金記)」와 「미륵조상중수기(彌勒像重修記)」를 통해 밝혀진 미륵전과 비로전

불상의 이운 과정 및 중수에 대한 정보는 더욱 값지게 느껴진다. 대웅전의 석가여래좌상(130cm)을 비롯한 비로전과 미륵전의 주존불(각 129.0cm, 165cm)은 전각만이 아니라 불상의 크기도 1m 훨씬 넘는 큰 규모이다. 그러나, 18세기에서 20세기로 갈수록 보조 전각의 불상들이 조성되면서 크기도 작아지고 불석 등으로 재료도 바뀌게 된다.

대웅전의 석가여래삼존좌상이 제화갈라와 미륵보살이 양협시로 구성된 점도 중요한 특징이다. 제작연대가 확실하고 사찰의 주전각인 대웅전에 제화갈라와 미륵을 협시로 한 석가삼존상으로는 거의 유일한 사례가 아닌가 생각된다.

범어사의 주요 불상들의 주재료는 나무이다. 주로 소나무와 은행나무를 이용하여 통목조나 접목조기법으로 만들며 흙으로 성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원효암 목조보살좌상이 유일하게 피나무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19세기부터 20세기에 걸쳐 범어사와 말사에 봉안된 불상은 불석이 점차 많아지는 변화를 보인다. 불석은 변성암으로 수억 년 전의 화산재가 쌓여서 굳어 돌이 된 것으로 흰색을 띄며 때로는 푸른 빛을 발하므로 옥석(玉石), 또는 경주불석이라고도 부른다. 조선 후기 17세기부터 경상도 지역 불상의 특수한 재료로 알려진 재질이다.

불사는 사찰이 처한 경제적 여건과 사회적인 변화에 민감하게 변화하며, 이에 따라 불상을 조성하는 후원자나 장인의 의식도 새로운 과정을 거치게 된다. 특히, 근대는 전통미술의 근현대화 과정이 추구되기 시작한 시기이다. 당시 사찰과 장인들 역시 과거의 역사적 유산인 전통을 이으면서 신문화의 수용과 더불어 창조적인 예술적 가치를 찾는 노력에 동참하였을 것이다. 앞으로 부산의 근대 불교미술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글 정은우 부산시립박물관장

고정된 클리셰를 깨다

## 오늘의 신화

*Mythologies of today*

2024. 1. 26. ~ 3. 10.

카린갤러리

보편적으로 '신화'란 전승을 통해 이미 그 이야기가 굳어져 사회 구성원에게 내면화됨으로써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부정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과거의 신화는 절대적인 존재 '신'을 주인공으로 하여 사회적 규범이나 미도덕·생활상 등의 기준이 되었다. 오늘날 엄청난 판매고를 올린 제품에 '판매 신화', 사회적 성공을 거둔 이에게 '성공 신화'라고 이름 붙이듯 신화가 가진 속성의 아성은 변함이 없다.

카린갤러리 2024년 첫 번째 기획전 '오늘의 신화'는 유명한 캐릭터나 스토리의 주인공(마키마우스나 도널드덕,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등)을 내세워 오히려 클리셰를 깨는 작품을 선보인다. '대개 그러하도록 생각되어지는', 혹은 '그러하게 생각되도록 계획된' 상징물의 이면을 각자의 문체로 표현한 작가 5인의 작품은 당연한 것을 뒤집어 보는 생각의 전환을 제시한다.

정안용 작가는 실제 '연기'를 이용해 찰나의 모습을 표현한다. 세계적인 인지도의 만화 캐





릭터 미키마우스, 부처와 보살의 모습 등이 이번 작품의 소재가 됐다. 사라져가거나 혹은 생겨나는 연기로 표현된 형태는 존재의 실존성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듯하다.

로드아일랜드 디자인스쿨 출신으로 3년 전 귀국해 부산에서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김수지 작가는 ‘꿈’이라는 지극히 사적인 시공간 속에 회화적 상징물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한다. 꿈이 으레 그렇듯 각기 다른 서사의 레이어가 겹겹이 쌓여 불연속적인 장면들이 혼합되고, 이것을 작가는 회화 특유의 편평함으로 재해석한다.

선명한 색감과 유머러스한 표현으로 얼핏 재미있는 캐릭터 화처럼 보이는 남궁호 작가의 작품은 유심히 살펴보면 꽤 미심장한 단서들을 찾을 수 있다. 이번에 선보이는 ‘무빙 라이프’ 시리즈에는 17세기 바니타스 정물화의 여러 상징물이 차용되면서 표정과 생동감을 더하고 있다. 그는 몽글몽글한 구름이라는 소재로 이제껏 우리가 그러하리라 생각해 온 세상의 형상들에 여러 질문을 던진다.

이은 작가는 미디어가 지배한 오늘의 시대상에서 ‘움직임’이라는 화두를 얻어 ‘붙잡히지 않는 순간’에 관한 기록을 이

야기한다. 늘 발랄할 것만 같은 캐릭터들과 그들이 주입하는 가치관 등을 화면으로 옮겨낸 작품은 쇼츠, 움짤 등과 같은 디지털 파일(GIF)을 떠올리게 한다. 현대의 영상 문물이 쏟아내는 이미지의 홍수 속 ‘실존적 가치’는 무엇인가를 작가는 시각화된 작품을 통해 드러낸다.

영상과 영화를 공부한 이력 때문인지 잭슨심 작가의 작품은 영화 포스터 같아 보이기도 한다. 도널드 덕, 핑크팬더, 도라에몽은 작가 특유의 자유분방한 필체의 회화적 옷을 입고 새로운 표정을 얻는다. 어린아이가 설게도대로 구현된 결과물에만 흥미를 느끼지 않고 그것에서 비껴 난 폐기물 같은 사물을 눈여겨보듯, 기존과 달라진 그의 작품 속 세계는 우리가 안주해 온 동심의 영역에서 벗어날 계기를 준다.

예술은 단순히 아름다운 데에서 그치는 게 아닌, 사회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사회 변화를 끌어내는 역할을 한다. 이미 익숙한 ‘오늘의 신화’를 뒤집어 보는 이번 전시는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현상을 새롭게 보는 눈을 갖게 하는 듯하다.

문의\_051)747-9305 / 편집실

1 잭슨심\_ALPHABET CARD DUMBO 5, Acrylic, Oil pastel, Collage, 117×91cm, 2022 2 이은\_Eek, Acrylic, Oil on canvas, 130.3×193.9cm, 2022  
3 남궁호\_Girl with a cloud earring, Acrylic on canvas, 80.3×65.1cm, 2023 4 김수지\_Lucid Vision Distant Dream II, Oil on canvas, 116.8×91cm, 2023

## 독보적인 작품세계를 구축한 김정명·김원백 초대전

2024. 1. 26. ~ 3. 29. 아리안갤러리

아리안갤러리가 신년 첫 전시로 김정명, 김원백 화백의 초대전을 개최한다. 두 화백은 작가정신으로 평생을 예술에 매진하면서 실험적이며 독보적인 작품세계를 구축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김정명 화백은 「내 마음의 장식장」 「머리」 등의 시리즈에서 다양한 미술사의 차용 및 내면화, 그에 기반한 사유를 선보였다. 고충환 미술평론가는 “그의 작업이 예시해 주는 의외성은 심지어 후배 작가들 못지않게 예외적이고 후배 작가들보다 더 예외적이다. 그의 작가적 아이덴티티는 이행성과 복수성으로 특징된다. 끊임없이 형식의 지점들을 옮겨 다니고 의미의 지점들을 가로지르면서도 그렇게 가닿는 지점들마다 하나같이 완성도가 높다. 그리고 그렇게 열어놓는 지평들이 예나 지금이나 시사해 주는 것들이 많다”고 말하며 그를 ‘타고난 체질적인 포스트 모더니스트’라고 칭했다. 「에너지 교감」 「빠져나오다」 등의 근작 역시 조각과 회화의 경계나 형식적인 표현 방식에 구애받지 않는 사고에서 탄생한 것으로 보인다.

김원백 화백의 작품은 눈으로 직접 봐야 그 마티에르를 느낄 수 있다. 그는 “칼과 가위가 나에게서 벗이고, 색 천이 물감이고 재료”라고 한다. 아크릴 물감을 반복 채색한 원색 천을 자르고 뚫고 오리고 붙이는 과정에서 ‘유전자 정보가 세포핵을 통해 세포 분열되고 증식되듯이 작업이 유기적으로 진화되어지길’ 원한다. 이후는 즉흥적 드로잉으로 입체적 평면을 만들며 작위와 무작위의 순환을 구성하는 것이다. 「유전자로부터」 시리즈에 대해 박영택 미술평론가는 “미술과 과학은 먼 거리에 위치해 있는 것 같지만 실상 생명체를 바라보고 경이롭게 그 현상을 관찰하며 그 안에서 질서와 법칙을 발견하는가 하면 또한 매혹적인 아름다움을 찾는 일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그가 만들어 낸 형상은 유전자의 질서와 원리를 응용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전시 관계자는 “한국현대미술을 이끌어 온 두 화백이 꽃 피운 끝없는 예술의 깊이와 다양하고 독창적인 조형 언어를 만날 수 있는 자리”라며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이들의 대표작과 근작을 모두 만날 수 있는 이번 전시는 3월 29일까지다.

문의\_051)757-2120 / 편집실



3



4

- 1 김원백\_유전자로부터(From Gene), Acrylic on Canvas Multi-layered Collage, 193.9×112.1cm, 2019
- 2 김정명\_빠져나오다(생각의 탄생), 23×12×25cm, 2023
- 3 김정명\_에너지교감, 90.95×72.75cm, 2023
- 4 김원백\_유전자로부터(From Gene), Acrylic on Canvas Multi-layered Collage, 72.7×60.6cm, 2023



유쾌하게 건네는  
그림 한마디

## 이지투게더 ‘농담 건네기’

2024. 3. 25. ~ 30.  
부산시청 제3전시실



- 1 천수민\_스피드, Acrylics on Canvas, 116.8×91cm, 2023
- 2 강준영\_알록달록 바나나나무, Acrylics on Canvas, 72.7×90.9cm, 2022
- 3 김두용\_꿈꾸는 부산, Acrylics on Canvas, 97×130.3cm, 2022
- 4 임이정\_나의 나무, Acrylic on Canvas, 91×116.8cm, 2023



비영리단체 [이지투게더]는 발달장애 예술인들의 작품 활동을 통해 그들의 주체적인 삶 성립, 사회적 활동에 대한 자신감 향상은 물론, 대중들의 인식 변화까지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의 소중한 일상이 누구에게나 수월하게 이해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당위적 삶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창구가 되고자 한다.

이지투게더가 준비한 2024년 첫 전시 '농담 건네기'는 발달장애 예술가 5인이 참여했다. 전시명처럼 친구들과의 유쾌한 만남 속 기분 좋은 농담을 건네는 듯한 분위기를 지향한다. 김두용 작가는 '여기는 부산입니다', 강준영 작가는 '알록달록 무궁무진', 천수민 작가는 '애묘인들의 사랑방', 임이정

작가는 '색을 나란히'라는 주제로 저마다의 농담을 수려하고 재기 넘치게 건넨다. 그 방법이 말이 아닌 '그림'이라는 게 놀랍다. 다채로운 색감과 색다른 시선, 독특한 화면 구성의 작품들은 장애인 예술가라는 편견을 깨는 듯하다.

전시 관계자는 "세련된 농담을 할 줄 아는 말씀씨를 가진 사람은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인기를 끈다"면서 "사실 농담을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특성을 가진 작가들이지만, 그들의 언어와 감각이 담긴 작품으로 관람객들과 유쾌한 농담을 주고받는 전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_051)582-2078 / 편집실



새로운 영감과 여행을 위한

## 복구 노을 및 야경사진전

2024. 1. 29. ~ 4. 30. 감동진갤러리

부산지하철 3호선 구포역에 위치한 감동진갤러리에서 '복구 노을 및 야경사진전'이 열리고 있다. 감동진갤러리는 2021년 특별기획전 'Sweet Dreams' 전시로 개관했다.

이번 전시는 2023년 복구 노을 및 야경 사진공모전에서 입선한 20여 점의 수상으로, 복구 곳곳에서 포착된 멋진 노을과 야경이 관람객들의 시선을 붙든다.





- 1 대상\_황홀한 노을
- 2 최우수\_여가 부산이가
- 3 최우수\_화명대교
- 4 우수\_노을 맛집 화명생태공원
- 5 우수\_축제의 등길
- 6 우수\_북구의 야경

‘하루를 살다 가는/저 빛난 죽음 앞에//까무룩 혼절하는/  
시간 시간/시간들//바람은 말간 양금으로/별을 빛고 있겠  
다.’(시조 노을) 태양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긴 여행을 마칠 즈  
음에야 온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고 노을은 제 모습을 드  
러낸다. 하루를 보낸 눈물의 수고와 결실인 기쁨을 모르는  
젊은이는 아직 노을을 모른다. 이말라 시조시인은 인생의 깊  
이를 담아 노을의 아름다움을 노래했다.

사진전에 펼쳐진 노을 풍경은 금가루를 뿌려놓은 듯 온 하  
늘이 황금색으로 물들어 있기도 하고, 양떼구름 사이로 아  
직 뜨거움이 남아 있다는 듯 마지막 열정을 쏟아내기도 하  
고, 오렌지빛으로 삭막한 도심에 온기를 전하는 것 같기도  
하다. 환하게 밝힌 도심의 불빛들은 귀갓길 고단한 하루를  
위로 해주는 듯하다.

북구의 자연경관, 현대적 도시 풍경이 담긴 사진전에서 내  
가 사는 부산 북구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며 직접 촬영지를 찾  
아가 내 눈에도 담아보고 싶은 여행 욕구도 마음을 흔든다.

전시 관계자는 “새로운 영감과 여행의 자극을 전달할 이번  
사진전은 북구의 다채로운 풍경을 직접 경험하는 여정의 시  
작점이 될 것”이라며 “북구의미를 발견하고 그 아름다움을  
직접 느껴보시기 바란다”며 초대한다.

문의\_051)309-4522 / 편집실  
사진출처\_2023 북구 노을 및 야경사진 공모전



# 빨간 튜립이 있는 풍경

연분홍빛 머금은 봄의 눈꽃 길 아래  
빨간 튜립이 웅기종기 모여 섰다.  
따스한 빛, 선선한 바람, 구경꾼들 눈길까지 온전히 담겨  
이리도 탐스럽고 싱그럽게 피어 있나 보다.

글 사진\_김석중 부산사진작가협회 회원





## 망월 望月

사랑방을 벗어나자 코끝이 썩하다. 휘영청한 달빛에도 냉기가 묻어 있는지, 목덜미에 얹히는 달의 체온 때문에 부르르 몸이 떨린다. 차가운 것이 주는 묘한 쾌감이랄까. 팔팔 쏟아지는 수돗물처럼 불과하던 취기를 단숨에 씻어내린다.

정월보름날은 한 해 중 유일하게 남녀노소의 마을 사람들이 모이는 날이다. 오며가며, 끼리끼리의 자리는 종종 생기지만, 공식적으로 못 박아 놓은 연례모임은 대보름에 이루어진다. 그날만은 하루를 온전히 동네 사람들과의 친교로 보낼 작정을 해야 한다. 이사 온 이듬해는 아침부터, 그 후로는 이른 점심으로 시작된 자리가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파하곤 했다. 하여, 이곳에 터 잡고 사는 이라면 잠시 얼굴도장이라도 찍는 것이 관례인가 보았다.



서로 부대끼며 밥을 먹고 술  
을 마시고 말을 섞는다. 왹자  
하게 분위기가 달아오르면  
중앙방송, 지방방송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만치 시끌벅적  
하다.

설도 추석도 아닌, 왜 정월대보름인지. 이유나 유래까지는 아직 모  
른다. 다만, 예부터 이어온 전통이라니 느끼막하게 손가락을 얹은 우  
리로서는 당연 빠질 수가 없다. 게다가 회합의 장소인 사랑방과 지  
근거리에 집이 있으므로 모른 척하려야 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다.

오늘도 아침나절부터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오곡밥이며 보  
름나물, 곶절이에 수육까지, 동네 손맛1호이신 윗집 할매께서 소매  
를 걷어 붙이셨다. 반장네는 인근 도시의 활어시장까지 달려가 횡감  
을 준비하고, 술이며 과일이며 음료수를 바리바리 풀어놓았다. 입만

가지고 간 나는 일조랍시고 상차림에 손을 보탬 뿐이었다.

처음에는 옆집 아래채가 동네 사랑방이었다. 그 덕 어르신이 계실 때부터 사랑방 삼았는데, 돌아  
가시고 난 후 집을 매수한 새 주인이 쾌히 방을 내어준 모양이었다. 우리 집과 담 하나 사이의 사랑  
방은 연로하신 할머니 세 분의 아지트였다. 세태에 발맞추며 사랑방도 변신을 했는지, ‘바깥주인이  
거처하며 손님을 접대하는 방’이라는 사전상의 의미와 다르게 남자 어르신들은 걸음을 두지 않는  
금남<sup>禁男</sup>의 구역과도 같았다. 가끔 들러보면 할머니들께서는 허술한 매무새로 TV를 켜 둔 채 두런  
두런 일상을 나누며, 졸다가 자다가 보다가 먹다가..., 무료함을 달래고 계셨다.

오래된 한옥의 아래채는 좁았다. 그곳에서 대보름 행사를 치를 때는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그럼  
에도 누구나 주저 없이 들어섰다. 만들면 만들어지는 것이 자리라며 당겨 앉고 쥐어짜는 것이 새  
로운 사람을 맞이하는 방식이었다.

두어 해 전, 마을에서 이동식 컨테이너 주택 한 채를 마련했다. 너무 오래 민폐를 끼칠 수 없으  
므로 사랑방을 독립시킨다는 명분이었다. 그래봐야 우리 집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옮  
겨간 정도지만, 덕분에 조금 넓어지기는 했다. 그러나 사랑방스러움이 반감된 사랑방이 되고 말  
았다. 게다가 그사이 한 분은 돌아가시고, 또 한 분은 거동이 편치 못해 출입이 예전 같지 않으  
시다. 한 분이 남아 계시기는 하지만, 사랑방은 오늘처럼 동네 사람들이 모여야 온기로 지퍼진다.

좁으면 좁은 대로, 넓어지면 넓어진 대로 복작거리기는 매한가지다. 교자상 서너 개를 놓고도 다  
닥다닥 붙어 앉아야 한다. 기껏 열댓 집이기는 하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새해 인사 겸 내외가  
세트로 출동을 하다 보니 만원사레다. 서로 부대끼며 밥을 먹고 술을 마시고 말을 섞는다. 왹자하  
게 분위기가 달아오르면 중앙방송, 지방방송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만치 시끌벅적하다. 누군가는  
잔을 부딪치고 누군가는 깔깔거리고, 또 누군가는 높아지는 데시벨 뒤로 슬며시 자리를 뜬다. 점  
점 후텁지근해지는 실내가 갑갑하긴 하지만, 몸의 거리가 만들어내는 친밀감 덕분에 우리도 생각  
보다 빨리 타지인이라는 이물감을 벗어낼 수 있었지 싶다.

논이니 밭이니 축사니, 처처에서 일이 사람을 부리는 곳이라 늘 바쁨의 족쇄를 차고 살지만, 농한 기라 다들 여유롭다. 분위기에 편승하며 먹고 마시며 어울리느라 막상 주인공인 보름달과의 해후를 놓치고 말았다. 달이 중천에 오르고서야 달맞이랍시고 고개를 치켜들어 보는 참이다.

인간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게 이름 붙이기를 좋아하는가 보다. 슈퍼문Supermoon, 미니문Minimoon, 블루문Bluemoon···, 보름달을 지칭하는 용어들이 부쩍 많아졌다. 과학을 동원한 해석력의 발달로 달이 점점 세분화 되어간다는 의미겠다.

작년 겨울에는 블러드문Bloodmoon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백 년에 한두 번 일어난다는 개기월식, 즉 달과 태양과 지구가 일직선으로 놓인다는 때였다. 여태도 보지 못했지만, 그날을 놓쳐버리면 자칫 앞으로도 볼 거라는 장담을 할 수 없는 일이라서 붉은 달의 얼굴을 만나기 위해 오슬오슬 떨었던 기억이 있다. 그러나 ‘달 달 무슨 달 쟁반 같이 둥근 달’, 유년의 한 시절이 자동 상영되는 낡고 닳은 동요 한 소절만 가지고도 괜히 울컥해지는 나로서는 그다지 대단한 의미 부여를 하지는 못했다. 오늘은 어떤 이름으로 세상을 비추는지, 창백하기조차 한 달의 표정을 망연하게 읽어본다.

몽환적인 아우라의 달무리를 거느린 채, 팽팽하게 차오른 달이 검은 밤을 건너고 있다. 비우고 채우고, 서른 날을 주기 삼아 저 홀로 낮을 바꾸는 달의 완성도가 한 해 중 최고조에 이르는 날쯤 이라 오늘을 격상시켜 볼까. 유년의 한때는 동요 속의 계수나무와 토끼를 찾느라 부산을 떨었지만 그런 환상 같은 건 없어진지 오래다. 그러함에도 달, 그 무궁무진한 감성에 나를 적실 여유 정도는 아직 남아 있으니, 세월이 가진 것을 탈탈 털어가는 와중에도 다행이라 할까.

달이 주는 메시지는 무궁무진하다. 누군가는 떠나온 고향을 추억하고, 누군가는 그리운 이름들을 되새긴다. 세월이 흘러도 달의 얼굴은 변함이 없건만, 추수 끝난 논에서 달집을 태우고 쥐불놀이를 하던 그때 그 시절은 어디로 달아나 버렸는지. 달이 데려다 주는 오래된 시공들을 뒤적거리며, 나는 지금, 내가 얼마나 맑고 투명하던 유년의 그날들과 멀어져 있는지를 가늠하고 서 있다.

*달이 데려다 주는 오래된 시공들을 뒤적거리며, 나는 지금, 내가 얼마나 맑고 투명하던 유년의 그날들과 멀어져 있는지를 가늠하고 서 있다.*



등 뒤로 인기척이 느껴진다. 이웃 아우 하나가 나란히 달을 바라고 선다. 정월보름달이 커야 그해 풍년이 드는 법이라며 한 해 농사를 달에서 점친다. 그제야 축제 처럼 치르는 대보름날의 내막이 조금은 풀린다. 농사 주기가 대부분 태음력에서 비롯되는 걸 보면, 무시로, 그리고 처처에서 드러나지 않게 일상을 변주하는 힘의 근원이 달이라는 말이다. 땅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해의 첫 만월을 어찌 허투루 보낼 수 있을까. 오늘의 거한 푸닥거리는 달을 숭상하고 대접하는 그들만의 굳건해진 의식인지도 모르겠다. 이런 기조라면, 오늘을 읽고 내일을 예측하기 위한 나의 주파수가 달의 모드로 맞춰질 날도 멀지 않았을 듯하다.

글\_문경의수필가

운슬을 닮은

피아니스트

## 최민경

- 부산음악상 수상
- 로렌조 페로지 국제콩쿨 1위 외 콩쿠르 다수 입상
- 네덜란드 현대음악 페스티벌 Trondheim International Chamber Music Festival 초청연주 및 독주회 등 국내외 연주 수백 회
- 현) 부산창작오페라단 사무국장·오페라코치  
작곡그룹 An-ti Stimmung 연주이사 Concert Pianist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길 바랐던 가족들의 바람 대신 부산으로 돌아왔지만 지금도 제 꿈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연주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삶은 무대에서 인정받는 것이니 만큼 계속해서 노력하고 인젠가는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무대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지난해 11월, 부산창작오페라단은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한 푸른 눈의 성자로 알려진 리차드 윌트컴 장군을 추모하는 오페라 <푸른 눈의 선한 사마리안> 갈라 음악회를 열었다. 오페라의 한 막처럼 구성된 공연은 배우와 가수를 분리하고 영상을 활용해 윌트컴 장군의 생애가 잘 드러나도록 했다. 피아니스트 최민경은 이 공연에서 연주와 연출로 참여했다.



“유학 당시 거의 매일 저녁, 수업이 끝나면 빈 국립극장에 서 수많은 오페라 작품을 봤습니다. 그 시간이 세계 연주가로서 뿐만 아니라 오페라 코치로 다방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자산이 되었습니다.”

최민경은 빈 국립음악대학에서 유학할 때 오페라 연출을 공부하며 세계 유수의 작품을 관람했던 10여 년의 시간을 돌아봤다. 그는 부산대학교 음악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트로쎅엔 국립음악대학에서 전문 연주자과정, 암스테르담 국립음악원, 빈 국립음악대학에서 최고 연주자과정을 마쳤다. 2007년 귀국 독주회를 시작으로 무지카 비바 챔버앙상블 연주, 부산피아노듀오협회,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 연주 등에 참여하며 왕성한 활동을 펼쳐 부산음악협회가 수여하는 부산음악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독주회는 거의 매년 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연주가는 연주가 있어야 담금질을 멈추지 않습니다. 레퍼토리를 개발하고 제 실력을 점검하는 과정이며, 무엇보다 오롯이 피아니스트 최민경으로 관객과 만날 수 있는 자리라 연주가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연습 외 시간은 악보를 보며 작곡가에 대한 침잠으로 보낸다. 곡에 담긴 작곡가의 의도가 무엇일까 들여다보고 귀 기울인다. 대학 때 스승이었고 지금은 인생의 반려자인 조희주 부산대 명예교수가 창작을 위해 참석하고 완성도를 위해 세밀하게 수정하는 지난한 과정을 곁에서 목도해 와서다. 하여 그가 악보를 대하는 자세는 곡진하다. 그리고 현대음악에 관심이 많은 그가 독주회마다 빠짐없이 하는 일 중 하나가 한국 작곡가의 곡을 연주하는 것이다.

“곡이 워낙 많아서 레퍼토리 구성이 어렵진 않지만, 한국 작곡가 특히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곡가의 곡을 소개하는 것은 연주자로서 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곡이 알려져야 해외 연주가들도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더 많은 품이 들더라도 창작곡 연주는 꼭 하려 합니다.”

그는 현재 지역의 작곡가 그룹 [안티 슈티몽 An-ti Stimmung]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모든 소리를 뜻하는 안티 슈티몽은 조희주 교수를 중심으로 경북대 진영민, 대구교대 박기섭

교수 등 아홉 명 작곡가로 구성된 작곡 그룹이다. 작곡자들이 매년 정기공연을 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안티 슈티몽은 다양한 단체와 테마로 곳곳하게 의미있는 연주활동을 펼쳐 오고 있다.

유학하면서 유명한 연주가로 세계 무대에 서겠다는 다부진 꿈도 있었고, 소신적으로는 현란한 테크닉을 구사하며 화려한 걸모습에 치우치기도 했다. 무대 연륜이 쌓이고 주위를 둘러보는 세월의 마디에 이르러서는 관객과의 소통이 더 중요함을 깨달았다. 또한 그만의 고유한 소리의 빛깔을 완성해 관객에게 새로운 연주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독일 유학 때, 아미라스 교수는 그에게 다른 유학생에게 없는 개성과 빛깔을 지녔다며 그만의 컬러가 바래지 않도록 당부했다. 클랑(Klang, 소리-음색)은 연주자에게 생명처럼 소중한 것이라 했던 아미라스 교수의 가르침이 이제 돌을별로 그를 비춘다.

영화 <쇼생크 탈출>에 인상적인 장면이 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앤디가 교도소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에 나오는 「편지의 이중창」을 트는 장면이다. 스피커를 통해 교도소 곳곳에 음악이 흐르자 죄수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마치 최면에 걸린 사람들처럼 음악에 귀를 기울인다. 육체는 비록 교도소에 있었지만 머릿속에 있던 음악까지 가둘 수 없었기에 앤디는 탈출을 꿈꾼다. 앤디에게 모차르트의 음악은 자유의 상징이다. 최민경은 음악이 삭막한 현실을 견디게 하는 윤슬이길 바란다.

“제 연주를 삶의 위안으로 삼고 희망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다면 연주자로서 더없이 행복한 삶이겠지요. 트로트뿐만 아니라 클래식도 즐기는 다양한 음악문화가 형성되도록 클래식 음악 전도사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글 사진 정지영



## 빛을 쫓는

# 사진가 정쌍환

- 그룹전 20여 회
- 전) 부산불교방송사진가회 회장,
- 현) 부산사진작가협회 회원

사진은 공히 '빛의 예술'이다. 「틈새의 빛」(본지 2023년 8월호, 포토에세이 게재)이라는 작품을 통해 빛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준 사진가 정쌍환은 그에 더해 "사진은 빛과의 싸움이다"라고 말한다. 찰나의 순간, 우연한 한 컷... 이를 위해 쉽 없이 셔터를 누른다. 그의 사진관 寫眞觀이 궁금해진다.

특정한 주제나 영감은 책을 본다고 떠오르는 것도, 명상한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라는 그는, 많은 사진가가 그러하듯 좋은 사진은 계속된 촬영을 통해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부지런히 전국을 돌아다니고 한 번 출사에 나서면 수천 장은 우습게 찍는다. 포토샵 등을 사용한 후작업이 가능한 세상이지만 원본은 불변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생하는 빛과 색감의 차이 그리고 자연스럽고 미세한

변화까지, 카메라에 담기는 세상은 한순간도 같지 않으므로 그 원본을 온전히 담고자 한다.

처음 카메라를 잡은 건 20대 후반, 사진이라는 것에 대해 '로망'이 있던 때다. 첫 카메라는 선물받은 니콘 FM2였다. 좋은 사진을 따라 찍는 것으로 시작한 사력 寫歷이 해를 더해감에 따라 몇 번인가 카메라를 바꿨지만 "자연의 색은 절대 재현할 수 없다"는 명제 아래 기종을 중요시하진 않는다. 그저 손에 맞는 것이면 족하다. 그렇게 눈과 손의 연장이 된 카메라로 찍는 건 대개, 어딘가 빛겨나 있는 대상이다. 주목받는 사물이나 현상이 있다면 그것의 외곽. 또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버림받은 공간 등이다. 폐가를 찾아 포항·영덕·울진·경주 등을 다니기도 하고 일출 사진이 아닌 어둠 속 빛

이 살짝 비치는 바다를 찍기도 하며, 유명한 사찰에 가서 그냥 '문살'을 찍기도 하는 식이다.

햇빛, 바람, 날씨, 자연이 선사하는 타이밍을 포착하는 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연한 기회에 들어간 폐공장에서 먼지 쌓인 바닥에 자라난 강아지풀 한 줄기가 빛을 머금은 것을 보았지만 깜짝 놀라 카메라를 갖고 왔을 때 빛은 지나간 뒤였다. 다음날, 일찍 가서 기다린 끝에 연극 무대의 핀 조명 처럼 한 조각 빛이 강아지풀을 비추는 순간을 찍을 수 있었다. 언제 '그 순간'이 올지 모르니 카메라를 가까이 두고 촬영할 준비를 순식간에 끝내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부산불교방송사진가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한 그의 작품에서 불교의 가르침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불교에서는 인연의 겹침을 말하며 웃기만 스쳐도 인연이니 귀하게 여기라고 한다. 정 사진가는 「동행」 시리즈를 통해 그런 사람간의 인연을 특유의 미감으로 담고 있다. 그가 직접 기억에 남는 작품으로 꼽는 「백제의 미소」는 서산 용현리 마애불을 찍은 것이다. 지금이야 시간과 때를 계산해서 산을 오르지만, 처음 찍은 날은 그렇지 않았다. 빛과 그림자가 절묘하게 어우러지며 마애불의 미소를 비추는 순간이 담긴 「백제의 미소」, 이후로는 욕심을 내봐도 그 느낌이 나지 않았다고 하니 어쩌면 마애불과 정 사진가의 인연이 그날 닿았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 밖에도 불교 사진은 대부분 흑백으로 촬영한다. 흑백은 눈을 현혹하는 미사여구 없이 정직하게 본질을 드러내어 사색에 잠기게 하는 힘이 있다. 후작업을 해 흑백으로 바꾸는 경우엔 평균값에 맞추느라 사진에 힘이 사라지기 때문에 직접 흑백으로 찍는 것과는 천지차이란다. 흑백 촬영일 때는 더더욱 빛이 중요하니 그가 사진은 빛과의 싸움이라고 말할 만하다.

그는 아직 개인전을 한 적이 없다. 이유는 스스로 만족할



작품, 일약 '센세이션'을 일으킬 작품이 나왔을 때에야 첫 개인전을 하고 싶기 때문이다. 옛날보다 사진의 변화와 그 추세가 지극히 빨라졌고 열심히 창작하는 사진작가도 많다 보니 도무지 그렇게 발표할 작품이 나오지 않는다고 멋쩍게 웃는다. 하지만 부지런하고 꾸준하게 사진에 진심을 쏟는 그에게 언젠가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리라 생각해 본다.

사실 그의 사진관은, 어쩌면 보편타당한 것이다. 원본에 충실하라,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부지런히 찍어라, 정형화된 주제만 찍지 말아라, 법과 사회적 규범을 지켜 촬영하라, 그리고 빛을 쫓아라. 당연한 게 쉬운 건 아니지만 말이다.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 제일 부러운 사람이 1년 365일 중에 최소한 330일을 카메라 들고 다니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그에게 사진가로서의 목표를 물었다. 그리고 돌아온 답변은, 인터뷰를 진행하며 느낀 정 사진가의 솔직담백함을 그대로 담고 있었다.

*“사람이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도 모르는데 장기적인 목표가 어디 있겠어요? 그냥 하루하루를 촬영하는데 미치고 싶어요. 그래서 죽기 전까지 사진을 찍을 겁니다.”*

글\_이효민 / 인물 사진\_김철환



## 만 편의 시, 백 권의 시집

### 시인 **김석규**

- <부산일보> 신춘문예 당선(1965),  
청마 유치환 추천으로 <현대문학> 등단(1967)
- 시집 『파수병』(1967) 『남강 하류에서』(1978)  
『우울한 영혼의 박제된 비상의 꿈』(1987)  
『먼 나라』(1994) 『낙향을 꿈꾸며』(2005)  
『시인의 방』(2019) 『물에 관한 사유』(2024)  
등 76권
- 경남도문화상, 현대문학상, 윤동주문학상,  
봉생문화상, 부산시문화상 등 수상  
황조근정훈장
- 부산시인협회장, 울산교육연수원장,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등 역임

김석규 시인은, 1965년 <부산일보> 신춘문에 당선, 1967년 청마 유치환 선생의 추천으로 시 천료 후 《현대문학》으로 등단했다. 첫 시집 『파수병 把守兵』(민조사, 1967)을 시작으로 만 편의 시로 백 권의 시집을 남기겠다는 바람은 현재 진행 중이며, 일흔다섯 번째 시집 『까치베개 이야기』를 2월에 출간하였다.

비가 종일 추적거린다. 봄을 부르는 교향시 같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시집을 발간한 김석규 시인을 만나러 가는 길 위에 물음표가 앞장을 선다. 조병화 시인은 2003년 작고하기 전까지 신세 권의 시집에 4,800여 편의 시를 남겼다. 그런데 만 편의 시와 백 권의 시집을 남기겠다는 시인이 있다. 김석규 시인이다. 오늘도 익어가는 세월에 굴하지 않고 창작에 매진하는 시인의 꿈은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

나의 바람은 만 편의 시를 백 권의 시집에 남기고 가는 것입니다. 그토록 되고 싶었던 시인이 되었으니 등단할 때부터 최소한 만 편의 시를 남기고 가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현재까지 쓴 시가 7,000여 편이니 이를 수 있겠지요? 권마다 108편(불교에서 분류한 108가지 중생의 번뇌를 상징)의 시를 싣고 있으며, 지금도 두어 권쯤 더 낼 수 있는 분량의 시편이 준비되어 있어요. 요즘은 호흡도 짧아지고 해서 한두 줄 단장 短章 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몇 권을 쓰느냐가 아니라 좋은 시를 쓰는 게 중요하겠지요.

“몹사등이가 구부러진 제 그림자를 나무라고 있다”

- 시 「단장」 전문

“한 뭉치의 비계덩이여 아니 달고 사는 비애여!”

- 시 「살」 전문

“한 평생을 승리로 이끈 훈장 혹은 삶의 연륜의 깊이”

- 시 「주름살」 전문

“한 달에 볼펜 한 자루를 쓴다면 말 다 했지”

- 시 「노작(勞作)」 전문

시인은 부산사범대와 부산대학교대학원을 졸업하고, 40여 년 동안 교사와 교육청 공무원으로 사시다 퇴임했다. 「새벽의 시」 「저녁의 시」 「새벽에 쓰는 시」 「봄날의 시」 「시론 詩論」 등 등 시와 관련한 제목의 시도 많다. 시가 그리 쉬이 씌여지는 것은 아닌 듯하다. 선생께 시란 무엇이며, 시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등단할 무렵 내 시의 테마는 인간성 회복, 사랑의 실천을 거창하게 내세웠어요. 첫 시집 『파수병』이 나온 습작기 무렵에는 농촌의 토속적인 서민의 삶과 정서, 애환 등이 주제였고, 70년대는 사회적이고 현실적인 것에 관심을 가졌지요. 진주에 있을 때인데요, 서울의 문학인들이 정의사회 구현을 부르짖으며 현실 참여에 적극적이었던 시기였어요. 나도 「닭은 언제 우는가」, 「백성의 흰 옷」 등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관심으로 현실 비판적인 글을 많이 썼고요. 그러다 보니 당시 《현대문학》 김국태 편집장으로부터 정치적인 시를 반려받기도 했답니다. 80년대 장학사 발령을 받고는 공문서 기안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창작 작업에 열중하지 못했어요. 그 시절엔 문서를 육필로 작성하면 타자수가 타자를 쳤어요. 전문 타자수가 3명일 정도로 서류작업이 많았답니다. 그때 쓴 글자들을 떠올리면... 장학사로 있으면서 사회비판적인 글을 쓸 수가 없어 거리를 두었지요. 그즈음 쓴 시편들을 보면 시적 관심과 흐름이 눈에 떨 겁니다. 장학사 10년 동안, 저녁 10시 전에 집에 들어간 적이 거의 없었어요. 대학학력고사 등을 모두 손으로 써야 했으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나마 젊은 날이라 버텨냈지 싶네요.

“이날토록 언어들만 가혹하게 혹사시켜 왔다./ 사물의 최후의 언어로 된 것을 채굴하기 위해/ 날마다 쓰다 버린 언어의 껍질만 수북하니 쌓여가고 시는 언제나 언어가 끝나는 곳에서 왔다./ (중략) 고맙고 고맙다/ 여태껏 떠나지 않고 늘 곁에 있어 주어

서/ 한 편의 시를 남기려 생애를 다 한/ 언어들의  
즐비한 무덤 앞에// 아직도 제대로 변변한 시집 한  
권 헌정 못 하고/ 하늘 아래 더 큰 부끄러움이며/  
해마다 잡풀은 푸르러 무성한데// 또 별초는 어느  
하세월에 다 하나/ 이날토록 빛나는 언어들만 축  
내며 살고 있다”

- 시 「시」 중, (시집 『새벽의 시』 2015.)

내 시는 물질문명으로 위축되어 상실한 사람의 본성과 인  
간성 회복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서민의 애환을 따뜻한 시  
선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을 주로 담으려고 하지요. 일상에 곤  
궁한 서민들의 삶에 대한 애정이 주된 나의 관심사입니다.

선생계선 부산사범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셨다. 전공인 미  
술보다 시집을 제일 많이 낸 시인의 삶을 살게 된 계기가 있  
을 것 같다.

미술을 전공했지요. 고향이 지리산 아래 가난한 함양인  
데 당시 사범대학은 국립이어서 교통비 정도의 국비를 지  
원해 주고. 졸업 후에는 취업도 보장되어 있어 가난한 집  
안의 영리한 아이들이 가는 곳이었어요,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학교에 발령도 내어주고 그랬으니까요. 나는 학교 다  
닐 때부터 국어와 영어를 참 잘했어요. 형편이 되면 외교  
관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독어·불어·영어 등 외국어를 열  
심히 하게 되었고요. 국어는 거의 100점이었는데 당시 사  
범대에는 국어교육학과 등은 없었습니다. 국어학과가 있  
었으면 그리로 갔을 거예요. ‘교육 고시’라는 중등학교 국  
어과 검정고시가 있었는데 합격을 했어요. 경남에서 세 사  
람이 합격을 했는데 나도 합격을 했던 거지요. 그래서 미  
술하고 국어 복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보니 서로 스카  
웃 해가려고 했었지요. 맨 처음 발령받은 곳이 진주여중  
여고였는데, 13년간 교사직에 봉직하다가 교장과 장학사  
를 거쳐 퇴직을 했답니다.

“시가 있어 나에게는 언제나 위안”이라는 선생은 지금까지  
7,000여 편의 시를 쓰셨다. 그러기까지 특별한 시작법(詩作法)이  
있을 것 같아 여쭙었다.

나는 연 구분이 없지만 행 구분은 철저하게 합니다. 그러  
니까 한 행 자체가 그대로 독립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조  
립을 하면 한 행이 되는데 굳이 연을 가를 필요가 없어서  
전부 다 붙여 쓰고 있어요. 70년대 「풀잎」이라는 시 이후  
로 꼭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시라는 것이 서로 긴밀하게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 토시 하나라도 빠면 의미가 흔들리  
게 되니까요. 한 줄이 시 한 편이 되고 15행이 하나로 융합  
되어 있는 시 형태를 의도적으로 취하고 있는 거지요. 시  
는 치밀한 구조로 더 큰 전파력과 호소력을 가지고 있다  
는 점에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의 서정적인  
시에는 연갈이가 되어 있었어요. 시인 저마다 갖는 나름의  
독특한 개성이고 시법인 셈이지요.

독자보다 필자가 많은 시대다. 읽어주지도 않고 돈도 안 되는  
시를 그렇게 열심히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 또한, 매년 한 권  
이상의 시집을 내며 독자들과 공유하고픈 메시지와 요즘 시의  
관심사는 무엇일까?

소위 말하는 앙가주망(Engagement, 즉 사회참여 문학)을 지  
향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이웃, 가난한 서민들의 삶의 체  
취가 묻어나는 시장의 목소리를 시에다 담았다고나 할까  
요. 크게 정리를 하자면 초기 습작 때부터 연결되는 것은  
농촌의 서정적이고 토속적인 정서와 현실 참여적인 시, 소  
시민적인 삶의 애환을 노래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지  
요. 지금도 가끔 직설적이지는 않지만 정치를 풍자하고 조  
소하는 시를 쓰고 있어요.

요즘 관심을 갖는 분야는 출산정책입니다. 산아율이 떨어  
지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고향에 가면 예전엔  
한 면에 초등학교가 세 개 정도는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도  
없어요. 학교는 문을 닫고 동네엔 아이 우는 소리가 안 나

나... 내가 교직에 있어서 그런지 학교가 문 닫는 것을 보면서 나라의 미래가 없는 듯 정말 암담합니다. 정치권에서도 출산정책에 신경을 쓴다고는 하는데 그리 와닿지가 않아요. 국가가 산후조리원을 지어 무상으로 조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이를 셋 이상 낳으면 국가에서 대학까지 보내준다든지 하는 제도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일흔다섯 번째 시집 중 “시인은 넘쳐나도 시는 없고/ 시는 있어도 독자가 없으니”라는 시 「단장」이 떠오른다. 60여 년 글을 써오면서 많은 작가들을 만나고 작품을 대했을 것이다. 치열하게 시를 쓰신 분으로서 글을 짓는 사람들과 문단을 향한 날카로운 조언을 부탁드렸다.

요즘처럼 문인이 양산된다는 것은 문학의 질을 떨어트린다고 생각합니다. 등단작품을 보면 시를 좀 쓰겠구나 싶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글이 글이 아니다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치열한 작가정신과 문학에 대한 정열 없이 대외적 활동에만 치중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런 사람들의 시를 보면 한심할 때가 많습시다. 치열한 작가정신이 없는 사람들이 문단에 바글거려다 보면 문단은 황폐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만 편의 시, 백 권의 시집 발간을 위해 매진했을 시간에 대한 가족들의 반응이 궁금했다. 짓곳은 질문에 선생께서는 진솔한 답변을 주셨다.

집사람은 책에 ‘영결증’을 내지요, 가족들은 시 쓴다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며 싫어하고요. 가끔 시 쓰는 일이 부질없다 싶으면서도 살아 있으니 꾸준히 이어가야겠지요. 지금은 불필요한 책들 버리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만 편의 시, 백 권의 시집은 시인이 되면서부터 정한 목표입니다. 그 꿈 이룰 때까지 저승사자도 나를 잡아가지 않아요 시겠지요?



만 편의 시를 누구나 쓸 수 있을까? 아니 누구도 쉽게 도전하지 못할 일이다. 일흔다섯 번째 시집 『까치베개 이야기』가 며칠 전 탄생을 알렸다. 2023년 5월에서 6월까지 쓴 시편들이란다. 그리고도 108편씩 두 권 분량의 시편들도 출간을 기다리고 있다. 김석규 시인은 파행적 역사 전개 속에서도 시선 거두지 않고 글을 짓는다. 그들의 절박한 현실을 깊은 애정과 분노로 증언하고, 이웃 서민의 삶을 감각적이고 생동감 넘치게 묘사하며 시대를 외면하지 않는 김석규 시인!

물이 깊어야 배가 뜨듯 자연과 사회에 대한 애정이 깊어야 공감의 시가 탄생한다. 시인의 길을 시작하면서부터 꿈꿔왔던 만 편의 시, 백 권의 시집을 향한 지치지 않는 열정! 그 바람 꼭 이루시어 문단의 큰 별로 영원히 빛나시길 염원하며, 딱딱따끈한 시 한 편 더 인용한다.

“이번에 또 시집을 냈다면서요

--- 웃고만 있는데

서점에서 팝니까

귀한 시집을 왜 팝니까”

- 시 「시집」 전문, (시집 『까치베개 이야기』 2024.)

글·사진\_노옥분 시인

그 골목

이용철

재건축에 동네 사라지고

아파트 숲에서

냄새 더듬다 길을 잃었네

좁은 길 가로등 혼자 희미한데

하이현 또각또각 지나가고

아버지 노래 막걸리에 비틀거리네

어둑해진 골목

"밥 먹어라"

엄마 목소리 울리고

**작가노트** | 재건축으로 옛 동네 사라지고  
울창한 아파트 숲을 거닐며 추억을 회상합니다.

글\_이용철 시인, 부산문인협회 홍보이사

# RE: VIEW

- 국악** 부산의 고유한 색채를 간직한  
김남순의 '김병호류 가야금산조' \_ 김동녘
- 문학** 에코토피아를 지향하는 초록 심상  
김초성 수필집 『풀벌 일지』 \_ 김정화
- 영화** 이어지는 땅 위에서 움직이는 사람들  
〈이어지는 땅〉 \_ 김민우
- 음악** 탐클래스 연주자들의 클래식 진수성찬  
해운대 음악제 '피아노 앤드 프렌즈 Piano and Friends' \_ 이혜영

## 부산의 고유한 색채를 간직한 김남순의 ‘김병호류 가야금산조’

글\_김동녘 부산문화예술교육연합회

국립부산국악원에서는 2월 17일 토요일 오후 3시 <토요 신명 2024> 초청공연으로 가야금 명인 김남순의 ‘김병호류 가야금산조’를 예지당에서 선보였다. 토요신명 공연은 매주 오후 3시에 열리는 국악공연으로 2009년부터 전통음악과 무용 연희 등 다양한 장르의 국악을 즐길 수 있게 만들어진 국립부산국악원의 대표적인 공연이다.

김남순 명인은 국립국악원 부설 국악사양성소 및 국립국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양대학교와 동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하였다. KBS국악대상 현악 부문 및 부산예술대상, 봉생문화상 공연 부문 수상 등의 이력을 지녔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문화원형 디지털 콘텐츠 사업 김병호류에 선정, 전 바탕을 녹음하였다. 현재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명예교수, 김병호가야금산조 연구회장, 한국가야금연주가협회 이사로 활동 중이며 부산에서 가야금 하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하다.

‘김병호류 가야금산조’는 진양조-중모리-중중모리-엇모리-자진모리-휘모리-단모리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야금산조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엇모리장단이 쓰여 다양한 리듬 형태를 가지고 있다. ‘김병호류 산조’의 시금새는 다른 산조에 비해 매우 섬세하게 변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관절과 손목을 쓰는 색다른 농현법과 미세한 미분음 연주에 많은 기교가 필요하여 연주자들 사이에 연주하기 매우 어려운 산조로 알

려졌다. 연주 시간이 비교적 짧은 편이지만 가야금이 낼 수 있는 미세한 여음 연주와 단단한 소리성음, 잘 짜인 조 구성으로 산조가 갖추어야 할 음악적 구성을 제대로 갖춘 명산조라는 평을 받는다.

이번 공연은 ‘김남순’ 명인이 김병호류 가야금산조를 복원하고 재창조하려는 노력이 엿보이는 시간이었다. 우리나라 1세대 명인들은 연주자이자 작곡가이기도 했기 때문에 같은 곡을 연주해도 연주자 본인의 색깔이 있었다. 각각의 색깔이 보이는 새로운 가락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도제식의 구음 전수 방식이 대부분이었던 옛날에는 녹음이라든지 악보가 없었기 때문에 이를 찾고 채보하고 악보화 시키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옛 명인들의 연주를 복원하고 후대에 보급하는 데 뜻을 세운 그는 남아 있는 여러 명인의 연주자료 채보를 시작으로 ‘김병호류 가야금산조’를 복원하려고 노력하였다. 92년에는 김병호류 가야금산조보존 연구회를 ‘강문득’ 명인과 창단하였으며 ‘긴산조’를 시작으로 악보집, 음반 등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노력 끝에 ‘김병호류 산조’에는 ‘다스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전하기도 하는 등 여러 노력과 성과 끝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문화원형 사업에서 ‘김병호류 가야금산조’ 분야에 선정되어 산조 전 바탕을 녹음하고 인터뷰 자료로 남기며 활발한 연주 활동을 이어 갔다.

그러던 중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교수 퇴임 3년을 남긴 어느 날 하늘의 뜻이었는지 미국 워싱턴 대학교 문화인류학 교수 '로버트 가피아스'가 국립국악원에 기증한 아카이브 김병호의 산조 영상자료와 녹음자료를 찾게 되었고 새로운 가락을 발췌하여 추가하고 생전에 연주한 다른 음원 등을 통해 기존 산조의 흐름에 맞게 삽입함으로써 긴산조를 구성하여 오늘 연주된 김병호류 가야금산조 형태를 만들어 냈다.

김남순 명인은 이번 공연에서 “김병호 가야금산조에 가락을 추가하여 긴 산조로 만드는 것을 사명으로 금암 김병호 선생의 순수한 창작 선율만이 울곧게 이어지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공연에서는 장구 반주에 김청만(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고별 보유자) 명인이 참여하여 연주의 질을 높였으며, 해설에는 윤중강 국악평론가가 함께하여 부산 가야금산조의 역사 등에 대한 설명을 통해 연주의 이해를 높였다.

산조는 순우리말로 '허튼가락' 또는 '흩어진 가락'이라고 풀이된다. 즉 어떤 형식이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연주자가

자유로운 느낌에서 마음껏 풀어헤친다는 의미이다. 물론 산조를 배울 때는 도제식 수업에서는 한 올의 가락까지도 스승이 어떻게 연주를 하든 그대로 따라 배우지만, 그 이후에는 곡에 무조건 따르기보다는 연주자에게 훨씬 더 많은 변주의 재량권이 주어지고 연주자의 역량에 맞춰 산조 음악 또한 변하게 된다.

산조는 우리나라의 작은 우주라고 말하고 싶다. 산조가 이렇게 변주곡의 형태를 지니게 된 것은 시나위나 판소리를 연주할 때 나타나는 즉흥적 허튼가락을 단편적으로 흥내내면서 연주하였기 때문이다. 시나위는 무속음악이었기 때문에 무당 굿판으로 악사들이 흥에 겨워 즉흥적으로 허튼가락을 연주하였고, 판소리 역시 상황에 따라 소리꾼이 가락에 변화를 주었기 때문에 변주가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산조는 이와 같은 허튼가락의 연주를 보다 체계화하고 또 음악적인 형태로 연주함으로써 탄생하게 되었다. 물론 악기마다 거의 각각의 산조가 있다. 이 가운데 꼭 권하고 싶은 것은 가야금산조다. 그중에서도 부산의 고유한 색채를 띠고 있는 김병호류 가야금산조를 추천하고 싶다.



## 에코토피아를 지향하는 초록 심상 김초성 수필집 『풀벌 일지』

글\_김정화 문학평론가, 동의과학대학교 외래교수

인간은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에서 살아가며 자연을 떠나서는 결코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은 인간이 단순히 자연과 연관을 맺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자연의 일부라는 뜻이다. 대문호 톨스토이는 생명론을 기반으로 식물에도 인간과 같은 생명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고, 가이아 이론의 창시자인 러브록은 지구가 생물에 의해 조절되는 유기체로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임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지구 환경은 어떤가. 기술 발달로 이전보다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지만 인간과 자연의 부조화로 심각한 생태 환경의 위기에 처해 있다. 이는 모두 인간 중심적 삶에서 비롯된 문제이므로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을 중시하는 인식이 필요하다. 그 대안으로 문학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자신과 공동체가 처한 삶의 조건을 살피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

최근 발간된 김초성의 수필집 『풀벌 일지』(세종출판사, 2023)는 꽃과 야초, 덩굴식물을 통한 자연과 인간의 공생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목차만 살펴보더라도 디지털리스, 인동초, 무화과, 아마풀라, 돌콩, 영경귀, 땀싸리, 소리쟁이, 수크령, 유도화, 산자고, 사위질빵, 박주가리, 백화마삭줄, 땅빈대 등 마흔여 종의 식물에 대한 서사가 담겨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들풀이 인류에게 미치는 생존 관계에 대한 재인식과 들풀의 존재 가치를 수필적 스토리로 묶어내려 하였다. 주변

에 깔려 있는 식물에 대한 관심과 애착이 환경과 지구촌 살리기에 일익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는 서문에서 작가의 실천적 생태의식이 뒤따른다고 하겠다. 그 정신을 「그린게릴라」에서 더욱 구체화시키고 있다.

동네 주변에 마음을 심고 싶었다. 약국 골목, 유치원 트랙, 공원 안, 어느 원룸 구석, 작은 공장 울타리 밑, 미장원 옆, 해강아파트 앞, 큰사랑교회 뜰, 내 살던 아파트 앞뒤, 산자락 석축 밑에 두루 꽃을 심고 오며 가며 살폈다. 군데군데 조경을 잘하여 도드라지게 보이는 것들보다 구석진 곳에서 수줍은 미모를 들어낸 작은 꽃, 평화롭고 정다운 꽃, 곱고도 소박한 그 꽃들이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해주게 되길 바랐다.

화자는 자신만의 그린게릴라운동을 이어간다. 그린게릴라는 기습적인 도심 정원 가꾸기 활동으로 삭막한 도시의 자투리땅에 화초를 심어 친환경적으로 탈바꿈시켜낸다. 1973년 도에 미국의 예술가 리스 크리스티가 친구 보워리와 함께 휴스턴 거리의 지저분한 공터를 꽃밭으로 만들면서 전 세계적으로 번져나가게 된 것이 기원이다. 더욱이 작가는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고 의무감에서 하는 더욱 아니다”라고 손사래를 치지만, 생태 위기를 극복하려는 방법을 묵묵히 실천하고 있는 셈이다. 나아가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함을 「잔디」에서 선명하게 부각시킨다.



‘나무를 기르고 꽃을 가꾸고 잔디를 키운다.’라는 말을 할 때 사람의 생각은 참으로 아전인수로구나 싶다. 그저 소유하는 주인의식을 버리지 못한다. 우리는 그들 식물의 보호를 받으며 살다 갈 뿐인데 동행하며 살고 있는 입장에 지배자인 양 마구 꺾고 자르고 뽑고 없앤다. 만물의 영장이라 칭하며 본능처럼 무의식 속에서 그리 살아간다. 어찌랴.

무의식중에서도 자연을 착취와 정복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현대인의 사고방식을 따끔하게 질타한다. 지구의 역사에서 뒤늦게 출현한 인간과는 달리 초식공룡과 공존했던 “까마득한 역사를 이어가며 가문을 지켜온” 잔디의 내력을 보더라도 인간은 무한한 경외를 올릴 일이다. 그것은 생명공동체 내에서 순환과 재생이라는 자연의 원리를 이상적이고 보편적인 삶의 원리로 제시한다. 가너린 한 포기 풀 앞에서도 연민과 돌봄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인격체로 느끼고 공존 가능성을 모색한 것이다. 「환삼」에서는 귀화식물을 통해 귀화 이주민의 디아스포라적 삶을 응시한다.

귀화식물도 우리나라에 오랜 세월 자리 잡고 살면 우리 산야 초나 다름없다. 지구촌이 하나가 된 세상. 국경을 넘나드는 자연의 생명체를 내가 싫다고 거부할 수는 없는 게 아닌가. 외래종이라 해서 무조건 부정적이며 거부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 우리나라에도 이제 귀화 이주민들이 많아졌다. 우리 문화 속에 뿌리내리고 살면 그들도 우리 민족이며 정겨운 내 이웃이다.

문화가 다른 이주민들이 타국에 정착하는 일이 어디 쉬운가. 이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된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는 것이며 다원성의 차별성을 인식하고 깨닫는 계기가 된다. 아직도 언어와 피부 색깔로 점수를 매기는 권력과 자본에 대한 허상을 귀화식물로 질타하고 있다. 화자는 모든 식물은 제각기 역할이 있으며 인간과 서로 융합적이며 유기적인 관계라는 점을 강조한다. 우주적 질서인 자연 속에서 인간은 한 부분일 뿐이요 자연계의 지배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 지적은, 땅은 이름 없는 풀을 기르지 아니한다는 “지불장무명지초(地不長無名之草)”로써 완결시켜낸다.

아울러 「수크령」을 통해 “순수한 우리말 이름을 지냈다. 수(水)는 이삭수를 일컫는다. 벼(禾) 변에 은혜(惠) 자가 붙어 있으니 은혜로운 곡식이라는 뜻으로 여기라는 말이다. 그령은 끌어메다라는 뜻의 ‘그러메다’란 어원에서 이른 말”이라는 어원을, 「영경귀」에서는 “10세기 중반 스코틀랜드가 적의 기습 공격을 당하기 전, 정탐꾼이 어둠을 틈타 성벽 가까이 오다가 영경귀 가시에 찢려 비명을 지르는 바람에 발각되어” 전쟁을 막은 공로로 스코틀랜드 국가 문장이 된 역사를, 「더덕」은 “한방에서는 인삼(人蔘) 사삼(沙蔘) 현삼(玄蔘) 고삼(苦蔘) 단삼(丹蔘)을 오삼(五蔘)이라 해서 중요한 약재로 상비해 두고 있다. 그 다섯 가지 삼중에 하나, 딱하니 자리하고 있는 사삼이 바로 이 더덕을 지칭하는 것”이라는 약용까지 식물에 대한 성찰과 탐구가 깊게 이루어졌다.

그동안 수필은 인간의 서사를 의미화하거나 내면의식과 정서를 표출하는 데 주력했다. 수필가들이 자연과 사회 공동체 문제에 관심을 쏟는 일에는 인색했던 것이 사실이다. 생태 위기는 전문가들만 관심을 갖는 일이 아니라 개인과 사회 모두의 노력이 요구된다. 그러한 까닭에 김초성의 『플로럴 일지』는 에코토피아(Ecotopia)를 만들기 위한 대안 모색으로써 의미 있는 생태 수필집임을 입증한다.

## 이어지는 땅 위에서 움직이는 사람들

# 〈이어지는 땅〉

글\_김민우 영화평론가

〈이어지는 땅〉(2023)을 보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선'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다. 비단 제목 때문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되는 가로와 세로가 교차하는 이미지를 보고 있노라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다. 가설에서나 존재하는 선이 아닌 이상에야 우리의 시지각은 선의 끝을 인식한다. 혹은 관념적으로 어떤 존재와 존재를 나누는 경계선에 대해서 생각할 것이다. 〈이어지는 땅〉에서의 '선'은 앞에서 설명한 선의 성질을 인식하고 그렇게 기능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단절과 분리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영화는 이어진다. 는 느낌을 준다. 이어지는 땅 위에서 움직이는 사람들. 이 이어짐의 감각을 찾아가 보자.

‘한국에 있을 때 연인이었던 호림(정희린)과 동환(김동환)은 우연히 런던에서 만나게 된다. 핸드폰을 잃어버렸다는 명분으로 동환과 함께하게 된 호림은 동환의 집에서 현재 동환의 연인인 경서(김서경)와 밀라노에서 온 동환의 친구 이원(공민정)을 만나게 된다. 이원은 길에서 우연히 화진(류세영)을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된다.’

〈이어지는 땅〉은 정말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영화다. 호림과 동환의 감정적 엇갈림을 제외하곤 에피소드라고 부를만한 것도 없다. 이야기가 희미하다면 다른 곳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당연히 영화의 배경일 것이다. 한국 독립영화에서 보기 힘든 유럽 배경인 것도 그렇지만, 인물들이 이곳에서 동화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서 눈에 띈다. 오히려 지켜보고 있는 우리가 그들을 더 익숙해할 것이다. 그건 단순히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의 문제뿐만 아니라 언제든 떠날 것만 같은 인상을 주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우리도 저 장소에 떨어지면 그럴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인지 현지인과 교류하는 장면이 그다지 많이 나오지 않고 그마저도 활발하게 관계하지 않는다. 심지어 최후반부 만나는 관광객조차 한국인이다. 그러니 대부분의 대사도 한국어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영화에서 인물들은 다른 도시로 떠났거나 떠나려 하고, 끊임없이 이쪽과 저쪽으로 움직인다.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건, 우리가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연속된다고



인식하나 영화에서는 다르다는 점이다. 영화는 필연적으로 '컷'이라는 단절 행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매체다. 제아무리 있는 그대로 담겠다고 수십 시간을 그 자리에서 찍는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컷'이 된다. 물론 대부분의 영화들은 관객의 관념 속에 컷과 컷 사이를 이어졌다고 여겨지게끔 노력한다. 하지만 <이어지는 땅>은 유독 단절의 행위를 강조한다. 장소와 괴리된 인물뿐만 아니라 1부와 2부처럼 나뉘어져 있는 내러티브 구조, 반듯이 그어진 가로의 이미지와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세로의 이미지들이 그렇다. 이와 관련해서 재밌는 장면이 있다. 우연히 만나 함께 하루를 보내게 되는 이원과 화진, 그러다 화진이 별안간 무언가를 찾으러 이원과 함께 있던 공원을 벗어난다. 화진은 공원을 벗어나 거리를 걷는데 걸어가는 컷과 이어지는 다음 컷의 거리의 방향과 길이 다르다. 즉 분명 붙어있는 컷임에도 다른 방향의 길을 천연덕스럽게 붙여놓은 것이다. 이토록 단절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건 반대로 이어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영화의 카메라는 런던과 밀라노를 배경으로, 인물들을 물 흐르듯 따라다닌다. 영화의 시작, 호림은 주운 캠코더에 담

긴 이원을 본다. 그러다 별안간 한국에서 연인이었던 호림과 동환은 가로로 반듯이 펼쳐진 공원에서 우연히(우연을 가장했는지 모름) 만나게 된다. 둘은 이어 동환의 현재 연인 경서를 만나게 되고 이원 역시 만난다. 이원은 다시 화진을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다. 이 과정이 불러일으키는 느슨한 이어짐, 그러니까 인물과 인물 사이, 그들의 대화에서 흐르는 감정과 기류들은 묘하게 겹쳐진 듯 겹치지 않게 이어진다. 정작 영화는 끊임없이 이미지로 단절의 감각을 불러일으키고자 애쓰어도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인물들은 결코 단절되지 않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영화 안 인물들은 감정적 톤으로 대사를 내뱉거나 딱히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음에도 생생해진다. 그것은 마치 끝이 정해져 있으며 경계선에 서있는 인간임에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선언처럼 느껴진다. 이어짐의 감각은 바로 그런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그것은 살아 움직이는 사람들끼리의 연대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게도 볼 수도 있겠지만 낯선 공간에서 정착하지 못한 채 이동할 수밖에 없는 이방인들의 숙명으로 나에게 더 가닿는다. <이어지는 땅>은 건조하고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이 사랑하는 이야기다. 그렇게 인간은 이어진다.

## 탐클래스 연주자들의 클래식 진수성찬

# 해운대 음악제 ‘피아노 앤드 프렌즈 *Piano and Friends*’

글\_이혜영 문화예술비평가

2018년 작은 음악회로 시작된 해운대 음악제(HMF)는 2020년 페스티벌로 그 규모가 커졌다. 올해는 1월 31일부터 2월 5일까지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에서 두 번의 콘서트 ‘모스틀리 피아노페스트 Mostly Pianofest’와 ‘피아노 앤드 프렌즈 *Piano and Friends*’, 그리고 ‘영 아티스트 콘서트’ 등으로 구성되어 국내 정상급 연주자들의 연주를 감상할 수 있었다. 피아노 3중주와 4중주, 플루트와 피아노, 재즈 보컬과 피아노 등 다채로운 앙상블로 꾸며진 둘째 날 콘서트 *Piano and Friends*를 들여다보자.

첫 무대는 피아니스트 김정권, 바이올리니스트 김동욱(부산대 교수), 첼리스트 이일세(부산시향 수석)가 하이든의 「피아노 트리오 *Piano Trio in G major, Hob. XV:25*」로 문을 열었다. 첫 번째 유럽 여행 중에 라이브 오케스트라로 들었던 추억이 있는 곡이어서 듣는 내내 ‘행복하다’를 몇 번이나 읊조렸는지 모르겠다. 특히 마지막 장에서 보여준 피아니스트의 표정은 나의 눈을 사로잡았다. 좌석 위치가 피아니스트의 손가락을 볼 수 없어서 아쉬웠지만 듣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속도에서도 정교함과 정확성을 유지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완벽했다고 말하고 싶다. 곡이 끝났을 때 매력적인 하이든의 곡을 더욱 세련되게 해석해 낸 세 연주자에게 기립박수를 보내고 싶었다. 세 분이 독주회를 한다면 꼭 찾고 싶다. 이름만 들으면 전 국민이 알만한 연주자의 전국 순회공연은 너무나 높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새로고침을 해가며 경쟁적으로 매표했던 것을 돌아보게 되는 순간이었다.

플루티스트 이혜경(단국대 명예교수)과 피아니스트 김영호의 「옛 모음곡 J. Rutter - Suite Antique for Flute and Piano(Prelude - Ostinato - Chanson - Waltz)」이 이어졌다. 관록이 느껴지는 아름다운 연주로 감상할 수 있었다.

재즈 보컬리스트 김혜미와 피아니스트 박진우의 무대가 뒤를 이었다. 파레스(O. Farres)의 「키사스, 키사스, 키사스 *Quizas, Quizas, Quizas*」, 피아졸라(A. Piazzolla)의 「요 소이 마리아 *Yo Soy Maria*」(나는 마리아예요) 그리고 G. D. Weiss & B. Thiele의 「What a Wonderful World」를 들려주었다. 클래식 음악 가운데 실용음악을 대표하여 나왔다고 생각한다는 재치 있는 가수의 말이 숨소리마저 죽이면서 연주자들과 호흡을 같이한 관객들의 긴장을 이완시켰다. 아름다운 목소리와 빼어난 외모 재치 있는



멘트가 좋았지만, 전후 무대와 비슷한 결을 유지하면서 이 질감 없이 감상할 수 있는 성악가의 무대로 구성했으면 어 뻤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잠시 해 보았다. 재즈곡에 익숙하지 않은 피아니스트가 훌륭하게 무대를 소화해 내었지만, 두 사람의 호흡은 다소 아쉬울 수밖에 없었고 환호와 자유로운 호흡을 독려하는 멘트가 반복되는 첫 번째 두 번째 무대를 감상하면서 '소리 없는 아우성'으로 연주자와 훌륭하게 교감했던 관객들을 반성하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아쉬웠던 것 같다.

마지막 무대는 피아니스트 김영호, 바이올리니스트 임흥균(부산시향 악장), 비올리스트 진덕(KBS교향악단 수석), 첼리스트 김두민이 브람스(J. Brahms)의 「피아노 4중주 Piano Quartet No. 1 in G minor, Op. 25」로 마무리했다. 젊은 브람스의 색깔과 느낌을 오롯이 담고 있는 곡, 정상급 연주자들의 거침없는 표현과 호흡은 관객들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비올리스트 진덕은 비올라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하면 이 브람스의 곡에 끌어 들일 수 있는지 완벽하게 아는 듯 보였고 첼리스트 김두민의 깊음과 바이올리니스트 임흥균의 밝음의 조화는 너무나 아름다워서 관객의 귀뿐만 아니라 모든 감각을 집중시키는 듯했다. 피아니스트 김영호는 이 모든 아름다움을

피아노의 선율에 태워 객석 곳곳으로 날려 보내주는 듯했다. 섬세한 표현과 호흡, 마치 아나운서의 발음을 듣고 있는 것과 같은 뚜렷함과 명료함, 그리고 내면의 목소리를 끌어 내는 듯한 힘! 이전의 다른 공연에서는 한 번도 눈치채 본 적 없었던 듯 새로운 그 무엇! '아름답다'라는 말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는 것 같다. 봄·여름·가을·겨울 사계절 맛 보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음악제였다. 페스티벌 '해운대음악제'가 유럽의 많은 음악 페스티벌과 같이 해운대를 대표하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페스티벌로 든든히 자리매김하길 바란다.

'피아노 앤드 프렌즈 Piano and Friends'를 음식에 비유하자면 종류와 맛과 가격에서 그저 합리적인 뷔페나, 한겨울 주머니 가벼운 서민들의 꿈꿨던 몸을 녹이는 뜨끈한 국밥이 아니라 한 상 정갈하게 잘 차려진 고급 한정식이랄 수 있을 것 같다. 공복감을 채우기 위한 목적의 끼니가 아닌, 식도락(食道樂)으로 이름할 수 있는 요리랄까. 귀한 손님을 맞이하려 차린 정성스러운 밥상이었다. 너무나 맛있고 만족스러운 한 끼 식사를 잘 대접받고 나오는 그런 느낌이었다. 평일 저녁 공연장에서 받은 클래식 진수성찬(珍羞盛饌)은 지금까지도 남아 마음의 공복감을 든든하게 채워주고 있다.

## 예술치료Ⅲ

# 치매 노인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통합예술치료



‘정서(Emotion)’란 인간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기쁨, 슬픔, 미움, 사랑 등의 여러 감정 혹은 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기분이나 분위기를 의미하는 광범위한 심리적 기능이다(국립국어원, 2024). 일반적으로 긍정 정서에는 기쁨(Happiness), 즐거움(Pleasure), 흥미(Interest), 안정(Tranquility), 득의(Prosperity), 배려(Consideration) 등이 있으며 부정 정서에는 분노(Anger), 슬픔(Sorrow), 공포(Fear), 죄책감(Guilty), 절망(Despair), 경멸(Contempt) 등이 해당된다.

인간이 경험하는 긍정과 부정의 정서는 사회생활에 적응하고 대처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균형있는 정서적 조절이 필요하다.

치매 노인의 경우, 치매에 걸렸다고 아무것도 모르고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여러 혼란 속에서 많은 괴로움을 느끼며 산다. 인지력이 저하된다는 것은 현재 환경과의 단절을 의미한다. 연결을 느낄 수 없는 세계는 혼란스럽다. 여기서 발생하는 정서가 불안이며 이것은 쉽게 공포로 이어진다(大井玄, 2013, pp. 161-162). 치매의 진행 정도에 따라 인지기능과 우울의 정도는 반비례 현상이 나타나는데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는 신체 기능까지 저하시킨다. 결국 치매 노인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중의 고통을 겪게 된다. 그러므로 치매 노인에게 무의식적으로 잔재된 습관적 암묵기억(Implicit memory)과 섬광기억(Flashbulb memory) 중 긍정적 경험의 발현을 통해 안정적인 정서 상태를 유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호에서는 필자가 치료사로 참여한 임상 사례 중 노인의 우울, 불안, 무기력 등 부정 정서는 억제하고 주위 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 기쁨과 만족감 등의 긍정 정서를 향상시킨 사례를 소개하겠다.

임상에 참여한 치매 노인 7명(A, B, C, D, E, F, G)은 전문의로부터 경·중증의 치매 판정을 받았으며 평균 연령은 81세이고 모두 B시 S노인복지센터를 이용하였다. 대상자 7명은 주 2회 90분 동안 30회기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에 25회 이상 참여하였다. 필자가 개발한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은 음악, 미술, 동작, 사진을 적용한 프로그램이다.

다음의 <표 1>은 30회기 동안 대상자들에게 관찰되는 정서를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그 내용을 비언어적·언어적으로 구분한 것이다.

범주	행동	내용
우울 완화	비언어적	질문에 대한 무응답이 줄어들음. 동작이 빨라짐.
	언어적	느리고 일정한 톤으로 말하지 않고 목소리가 커짐.
관심 증대	비언어적	사물에 대해 반응함. 활동을 미리 예견함.
	언어적	관심을 보이는 질문을 함. 참여 의지를 표현함.
기쁨 증가	비언어적	미소를 짓거나 웃음, 춤을 춤.
	언어적	기쁨·즐거움·만족감에 대해 표현함. 노래를 부름. 유머를 사용함.

<표 1>

## 1. 우울 완화

### 1) 비언어적 행동

① 질문에 대한 무응답이 줄어들음 : A는 1회기 <이름 부르기> 활동에서 “어르신 잘 하실 수 있죠?”란 치료사의 질문에 무응답이었지만 3회기 인사노래 끝맺음에 “아, 내사 못한다(아, 나는 못한다)”라고 대답하였다. D는 3회기 인사노래 시작에서는 반응이 없었지만 끝맺음에서 “난 할 수 있다”라는 소극적 대답을 기점으로 서서히 치료사의 질문에 답

하기 시작하였다.

② 동작이 빨라짐 : 13회기까지 치료사의 도움을 받아 활동에 소극적으로 참여했던 B가 14회기 <2월 달력 만들기> 시작 전, 그림을 그리자는 치료사의 말에 자발적으로 소파에서 일어나 탁자에 앉았으며 15회기 <명랑 운동회 I>에서 본인 순서에 공을 치기 위해 주저 없이 일어나서 치료사에게 “할까요?”라고 물으며 준비 동작을 취하였고 공도 세계 쳐서 동료들의 박수를 받았다. D와 G는 상대방이 쓰러뜨린 볼링 핀이 몇 개인지 치료사가 세기 전에 미리 세어 E에게 알려주었다.

### 2) 언어적 행동

① 느리고 일정한 톤으로 말하지 않고 목소리가 커짐 : 14회기까지 말수가 적고 조용하며 치료사의 질문에 고개만 끄덕이던 C는 15회기 인사노래와 전신 스트레칭이 끝나고 “내가 최고”라고 돌아가면서 말할 때 이전 회기보다 훨씬 더 큰 목소리로 자신 있게 말하였다.

## 2. 관심 증대

### 1) 비언어적 행동

① 사물에 대해 반응함 : 8회기 <무엇일까요?> 활동에 맞는 사진을 찾기 위하여 C, D, G는 의자에서 일어나 사진 쪽으로 다가가 여러 사진을 살펴보았다. A는 가마솥 사진을 가져가서 유심히 쳐다보았고 이를 지켜본 E가 가마솥에 대해 A와 젊은 시절 시집살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같은 회기에 A는 <그때 그 시절> 활동에서 치료사가 가지고 온 꽃 고무신을 신었다. 이에 다른 대상자들이 “할매~ 참 곱다”, “아이고 딱 맞네”라고 평하자 A는 계속 웃고 걸어 다니면서 “예, 다녀 왔니더(예, 다녀왔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한번 신어보소”라며 C에게 고무신을 벗어 건넸다. 10회기 <나의 가족을 소개합니다> 활동이 끝난 후, E는 색연필을 색깔 별로 정리하여 본인 앞에 두고 이리저리 만지며 관찰하였으며 15회기 <명

랑 운동회 I)에서는 볼링 핀과 수를 세기 위한 카운트 재료를 계속 쳐다보았다. 26회기 <사계절 여행>에서 모든 대상자가 사계절에 관한 사진들을 유심히 살펴본 후, 계절에 관련된 이야기(봄꽃, 소나기, 추수, 김장 등등)를 자연스럽게 나누었다.

② 활동을 미리 예견함 : 6회기에서는 치료사가 설명하기 전, “꽤나칭칭나네” 반주가 나오자 C, E, F, G는 캐스터네츠를 자연스럽게 연주하였다. 15회기 <명랑 운동회 I>에서 볼링 핀을 보고 D가 C에게 “저거 넘어뜨리는 거 아이기? 기다(저거 넘어뜨리는 거지? 맞네)”라며 활동 내용을 미리 설명하였고 17회기에서는 E가 태극기 접는 방법을 미리 시연하였다. 28회기의 <소중함 나의 몸 II>에서는 치료사가 스케치북을 펴고 회기를 시작하려 하자 D와 G가 “지난번에는 손 그랬으니 오늘은 발 그럴까요. 선생님?”라며 활동에 대해 미리 준비하였다.

## 2) 언어적 행동

① 관심을 보이는 질문을 함 : E는 8회기 <그때 그 시절> 활동에서 짚신을 어떻게 구했는지 치료사에게 질문하였고 11회기 <족두리 만들기>에서는 만든 족두리를 집에 가져가도 되는지 B와 G에게 물어보았으며 15회기 <명랑 운동회 I>에서 치료사가 제작한 카운트 재료를 보고 “선생님이 직접 만든 겁니까?”라고 질문하였다. 18회기에서 A와 C는 테이블에 놓인 스피커를 보고 “선생님, 이 까만 거는 뭘니까?”라고 질문하였고 24회기 <그림 퍼즐 I, II>에서도 퍼즐 판을 치료사가 직접 만든 것인지 구매한 것인지 관심 있게 질문하였다. 치료사가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라고 대답하니 “아이고, 우리 선생님이 수고가 많네요. 고맙습니다”라고 응답하였다. 30회기 <나에게 주는 선물>에서 A와 F는 잡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보면서 생소한 물건의 사진들(마사지 기계, 편집기, 발 안마기 등)은 그 사용법을 치료사에게 물어보며 관심을 보였다.

② 참여 의지를 표현함 : 6회기에서 C는 민요 영상을 시청하면서 “노래 부르고 싶다!”고 본인이 하고 싶은 활동에 대

한 의사를 표현하였다. 10회기에서는 가족에 관한 동영상 시청하자 A가 “책을 봐야지. 지금 뭐하노!! 책도 안보고!”라며 동영상 시청 외의 활동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였다. 15회기 <명랑 운동회 I>에서 C는 “이거(투호놀이) 한 번 더 하자!”고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표현하였으며 이에 D가 “한 번 더 해보이소!”라고 독려했었다.

## 3. 기쁨 증가

### 1) 비언어적 행동

① 미소를 짓거나 웃음 : 프로그램에 참여한 모든 대상자에게 눈에 띄게 관찰된 변화 중 하나는 점차 웃음이 증가하는 것이었다. 5회기까지 무표정이었던 A는 6회기 “꽤나칭칭나네” 개사 활동에서 캐스터네츠를 잡으며 웃었고 11회기 혼례 영상 시청 시 대상자 7명 중 B만 제외하고 모두 크게 웃었다. 15회기 <명랑 운동회 I>에서 대상자들 모두 자신의 실수에 활짝 웃었고 이를 본 다른 동료들도 모두 같이 웃었다.

② 춤을 춤 :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상자 중 E는 6회기부터 노래를 부르거나 음악을 들을 때 가끔 어깨를 들썩이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행동을 보였다. 12회기에 “달아 달아 밝은 달아” 노래를 부를 때 E의 팔 동작을 관찰한 치료사가 “어르신, 춤 잘 추시네요!”라고 칭찬하니 13회기부터는 춤을 추고 싶을 때는 일어나거나 앉아서 편안하게 춤을 추었다. 또한 C는 29회기 시작 전, 치료사가 마이크를 준비하자 “닐리리아~니나노~”를 부르며 소파에 앉은 채 양팔을 올려 어깨춤을 추었다. 이어서 E가 “노세~노세~ 젊어서 노세”를 부르니 나머지 6명의 대상자가 노래에 맞추어 손뼉을 쳤다.

### 2) 언어적 행동

① 기쁨·즐거움·만족감에 대해 표현함 : 12회기 동료들끼리 덕담을 나누는 시간에 G가 “몸이 약한데 이렇게 좋은 데 와서 사랑을 많이 받으니 하늘나라에 가도 아쉬울 게 없다”고 말하자 A도 “이래 노는 게 좋지”라고 대답하였다. C는 치



료사에게 “선생님 수고 많으십니다”라고 인사하였다. 15회기 <명랑 운동회 1>이 끝난 후 치료사가 “어르신들~힘드세요?”라고 묻자 “뭘~힘들어, 좋지!”라고 C가 대답하였고 25회기 <전국 노래자랑> 후에도 “어르신들~목 아프세요?”란 치료사의 물음에 D는 “뭘, 목이 아파. 너무 좋다. 자주자주 오세요. 즐겁기도 하고요”라고 대답하였다. 30회기를 마무리하자 F가 “오늘은 선물도 받고 기분 역수로 좋다!”라며 치료사를 보고 활짝 웃으니 E가 따라 웃으면서 손뼉을 쳤다.

② 노래를 부름 : 프로그램에서 노래를 부르는 활동이 아닌데도 노래를 부르는 경우가 자주 관찰되었다. 11회기에 혼례 영상을 시청하며 “갑순이와 갑돌이” 노래가 나오자 C가 선창하기 시작했고 D와 G가 따라 부르니 B와 F가 함께 손뼉을 치며 따라 불렀다. 21회기에서 합주 시청 시 “아리랑” 연주가 시작되자 대상자 모두 아리랑을 따라 불렀다. 29회기 <다 함께 차차차> 활동에서 모든 대상자는 가사를 읽으며 함께 노래를 불렀다.

③ 유머를 사용함 : 유머는 단체 내의 활력과 기쁨을 상승시킬 수 있는 매개체로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유머의 사용은 5회기 이후부터 관찰되었다. 5회기 <설날 놀이> 활동에서 치료사가 투호 상자를 치우니 E가 “한 장사만 하면 되나, 딴 장사도 해야지”라고 다른 활동이 하고 싶음을 유머러스하게 표현하였다. 같은 회기에 C가 노란 탁구공을 보고 “이쁘다. 계란 노른자 같네. 저는 계란 팔로 가겠습니다”라고 농담을 하니 E가 “계란 팔로 가이소. 계란팔고

또 뭘 팔지? 돈벌이 좀 되겠네”라며 농담을 서로 주고받았다. 이후로 E는 유머러스한 대화나 행동을 종종 하였는데 9회기에서 노래를 부르며 에그셰이커를 돌리는 활동에서 오른쪽에 앉은 C에게 에그셰이커를 주려다가 왼쪽에 앉은 A에게 주는 페이크 모션을 취하자 모두 함께 웃었다. 10회기에 E는 가족에게 쓴 편지를 봉투에 넣으려는데 잘 들어가지 않자 “사랑하는데 와 이게 안들어가노”라고 하니 모두 웃음으로 반응하였다.

이상에서 소개한 내용 외에도 대상자들은 30회기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무표정하거나 허공을 바라보는 횟수가 점차 줄어들고 고개를 숙이거나 눈을 감는 행동이 감소하였다. 이는 우울이 완화되는 비언어적 행동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편안한 자세를 취하고 서두르지 않고 부드럽게 말하면서 안정을 유지하는 것 또한 관찰되었다.

필자가 개발하고 효과를 검증받은 위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 외에도 치매 노인의 인지, 정서, 행동에 관한 수많은 예술치료 연구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소개되고 있다. 치매 노인이 이용하는 기관이나 시설에서 치매 노인의 심리적 안정과 신체적 기능 향상을 위한 예술치료 프로그램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정책적 방안과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글은 필자의 논문 중 일부를 발췌 및 수정하였음)

글\_김소형 동의대학교 음악학과 예술치료학과 교수

## 즐거운 희곡 읽기 I

바  
12월 잇은 그녀들의 하룻밤 스  
다에서

살을 연대하다 — 배삼식, 『화전가』(민음사, 2020)를 읽고

### 같이 희곡을 읽는 시간

희곡 읽는 사람이 드물다. 제대로 읽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도 있다. 심지어 희곡과 희극을 혼동해서 말하는 사람도 있다. 신춘문예에 희곡 공모도 시들하다. 대학에서 희곡 관련 과목 개설도 사라졌다. 문학연구자도 예외가 아니라서 시, 소설은 알아도 희곡을 안 읽거나 몰라도 크게 민망할 일이 아니다.

하나 사르트르가 말한 바 있듯이 서구문학사는 희곡의 역사이다. 그리스 비극에서 문학이 출발했고 노벨문학상 수상자의 1/3이 극작가라고도 한다. 조지 버나드 쇼, 유진 오닐, 사무엘 베케트, 다리오 포, 가오싱 젠, 해롤드 핀터, 페터 한트케, 그리고 지난해 노벨문학상을 받은 욘 포세까지. 인간과 삶을 현재적으로 고민하고 행동문학으로 구현해내는 데에 희곡과 연극의 중요함은 말할 필요가 없다

물론 희곡은 공연을 통해 관객과 만나는 과정에서 연극의 모습으로 완성되므로 연극을 보는 것으로 희곡을 감상할 수 있다. 하나 공연을 통해서 물리적으로 만나야 하는 연극은 내가 보고 싶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연극은 행해지는 동시에 사라진다. 연기처럼 사라진 그 자리에 오직 희곡만 남아 있다. 먼 옛날부터 지금까지, 동서양을 아우르는 수많은 연극은 희곡을 남겨 두고 사라졌다. 그래서 희곡은 연극을 만나는 출발이다. 무대 현장에서 보는 것

이 아니라 활자를 통해서 읽는 희곡은 또 다른 즐거움을 주기도 한다.

하나 희곡 읽기는 쉽지 않다. 우선 해설이나 지문형식이 독성을 떨어트린다. 서술과 묘사가 아닌 대화를 묵독하면서 읽는 것도 영 어색하다. 그런데 소리 내어 읽다 보면 묵독에서 이해 안 되던 장면이 놀랍게도 이해가 된다. 희곡은 ‘말의 문학’이기 때문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홀로 소리 내어 읽는 것보다 역할을 정해 여러 명이 같이 읽어보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읽기 형식이다. 희곡은 ‘대화의 문학’이기 때문이다. 소리로 낭송하다 보면 표정과 손짓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희곡을 같이 읽는 것은 그래서 몸으로 읽기이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읽기로 했다.

내가 사는 지역 창원에 인문학협동조합 [지혜마실]이 있다. 조합원들과 희곡을 읽기 시작한 날짜가 2021년 2월이다. 100편 희곡 읽기를 목표로 모여서 일주일 한편, 정해진 희곡을 줌으로 읽는다. 코로나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선택한 만남의 방식이었는데, 처음에 어색하던 줌이 그런대로 익숙해져 일요일 저녁 8시가 되면 어김없이 줌으로 입장한다. 2년이면 100편을 읽을 수 있겠지만, 희곡의 길이나 개인의 사정상 속도가 느려져 3년이 지난 지금 63편을 읽었다. 소포클레스, 셰익스피어, 헨릭 입센, 베르톨트 브레히트, 아더 밀러, 안톤 체홉, 사무엘 베케트, 이오네스코, 장 주네, 테네시 윌



『화전가』 표지

리엄즈, 유진 오닐, 피터 쉐퍼, 존 필미어, 가르시아 로르카, 차오위의 대표작을 읽었고, 여성 작가 드니즈 살렘, 폴라 보글, 마사 노먼의 희곡을 읽었으며 우리나라 극작가들 이률 테면 최인훈, 이강백, 이근삼, 장우재, 신성우 그리고 배삼식의 작품까지 읽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희곡이 있었던가. 읽고 싶은 희곡은 밤하늘에 별처럼 많아 때로는 더 읽고 싶은 조급함에 시달리기도 한다. 하나 별자리를 단정하게 지키는 별과 별 사이의 준엄한 거리가 밤하늘을 아름답게 만들 생각을 생각하며 이제는 느긋하고도 즐겁게 희곡을 읽는다. 굳어진 혀를 움직여 소리 내어 읽고 최대한 등장인물의 마음에 몰입해서 읽는다.

배삼식의 『화전가』는 우리 모임에서 열 번째로 읽게 된 희곡이다. 『화전가』는 민음사에서 출판되었는데, 분홍색 표지 부서가 인상적이다. 이 년 전 봄, 김해 율하에 있는 북카페에서 작가를 초대할 적이 있었을 때, 직접 작가를 만난 적이 있다. 순수하고 맑은 얼굴이다. 얼굴은 내면의 지도라고 했던가. 수줍은 소년 같은 얼굴은 유난히 서정성이 풍부한 그가 쓴 희곡의 뿌리를 짐작하게 한다.

희곡은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말로 뱉어내야 잘 이해된다는 말에 가장 좋은 예가 그의 작품 중에서도 『화전가』가 아닐까. 모든 인물이 경북 봉화 사투리로 대화를 주고받는다.

눈으로 읽어서 도무지 이해 안 되는 단어가 말로 주고받을 때 놀랍게도 그 뜻이 이해된다. 납작한 종이에 간힌 글자가 사람의 말에 담겨 마침내 몸을 갖게 되는 느낌이다. 전주가 고향인 작가가 경북 내륙의 사투리를 어쩔 이리도 잘 구사할 수 있을까. 그의 노고로 봉화의 반촌 여인에게 어울리는 화전가의 사투리는 희곡의 세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

[백희모](백번희곡을읽는모임)는 줌으로 읽던 『화전가』를 양산 내원사 짚북재에서 읽기도 했다. 2022년 11월 만추에 접어든 양산 천성산은 그야말로 그림 같았는데, 우리는 산의 품에 안겨 『화전가』를 다시 만났다. 노전암에서 주지 스님이 만든 점심을 먹고 스틱을 짚는 대신 희곡집을 배낭에 넣거나 거드랑이에 끼고 짚북재에 올라 희곡을 읽었다. 세상 좋은 팔자가 있다면 바로 우리들이었다.

### 밤을 잊은 그녀들의 이야기

『화전가』는 1950년 4월 하순 어느 날 경북 내륙 반촌에서 일어난 이야기이다. 모두 5장으로 구성돼 있는데 1장과 5장은 종소리, 2장과 3장은 경신일 그리고 4장은 화전놀이로 비교적 단순한 구성이다. 김씨 할머니의 환갑을 축하하기 위해서 집을 떠나 있던 딸들이 찾아오고 김씨의 두 며느리와 함께 경신일 밤을 새우면서 화전놀이를 준비한다. 그러니깐 『화전가』는 늦은 봄 오후에서 다음 날 오후 딸들이 떠나는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이야기이다.

좌우의 이념 대립으로 불온한 시간, 김씨의 남편은 행방불명되어 소식이 묘연하고 큰아들은 고문으로 정신이 이상해져서 죽고, 둘째 아들은 빨갱이라고 감옥에 갇혀 있다. 남자가 없는 여성의 공간이란 점에서, 좌우의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극의 배경이라는 점에서 차범석의 『산불』(1963)과 유사하지만, 『산불』에서 보이는 이념 갈등이나 여성끼리의 대립이 『화전가』에는 아예 없다.

6.25전쟁이 일어나기 두 달 전이라 가끔 폭탄 소리가 멀리서 들려 오지만, 그녀들의 일상 속 수다와 환갑맛이에 대한 기대와 설렘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념의 대립은 극의 배경으로 물러가고, 『화전가』에는 세상을 떠났거나 집을 떠난 이들을 그리워하고 염려하는 가운데 오랜만에 만난 여성들이 서로의 삶을 보듬고 따뜻하게 위로한다.

작품의 민속적 배경이 되는 경신일은 그녀들이 잠들지 않고 깨어서 서로 수다를 즐기도록 하는 극적 장치이다. “삼시<sub>三時</sub>라꼬, 사렘 몸에 벌거지가 시 마리 산단다. 머리에 한나, 배에 한나, 아랫도리에 한나. 이기 가마이 들앉아가 요래 보고 있다가, 지 권이 지은 쥐를 치부책에다가 따박따박 씌논단다. 그래가주고 두 달에 한 번, 경신일에 하늘로 올라가 옥황상제님한테 마캐 일러바채. 그라만 상제님이 그 진 쥐만큼 멍부책에서 그 사람 멍을 제하는 게래.” 경신일에 대

한 김 씨의 설명이다. 죄짓지 않으면 오래 살 수 있겠지만, 누구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 이를 상제가 모르도록 하면 되고, 이를 위해서는 경신일 밤에는 잠을 자지 않으면 된다는 재미난 발상이다.

눈썹 끝에 달린 잠을 쫓으며 그녀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는 밤새 이어진다. 납닥생명이 귀한 삼베 얘기, 치마저고리 얘기, 음식 이야기, 지나간 사랑 이야기, 환갑 선물 이야기, 죽은 사람 이야기 그리고 만주에서 고생한 이야기와 서러웠던 세월 이야기가 무궁무진하게 피어오른다. 그들이 밤새 나누는 이야기가 무엇이든, 이야기는 각자 앞에 놓인 현실을 잊게 하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나아가 상처를 치유한다.

### 서정적인 대사와 음식의 연대

전통적인 희곡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갈등을 유기적으로 보여준다. 흔히 말하는 ‘잘 짜여진 연극’이 여기에서 나왔다. 그런데 배삼식 희곡의 공통점은 갈등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 그 스스로가 삶과 세계에 대한 이미지를 파편적이며 순간적이고 일회적인 것으로 보고 있고, 필연보다는 우연이 지배하는 어떤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면 삶이 어찌 논리적이고 인과적으로 잘 짜여질 수 있을까. 그것은 환타지에 가깝다.

소리 내어 읽다 보면 묵독에서 이해 안 되던 장면이  
놀랍게도 이해가 된다. 희곡은 '말의 문학'이기 때문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홀로 소리 내어 읽는 것보다  
역할을 정해 여러 명이 같이 읽어보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읽기 형식이다.

극적 양식에서 벗어난 그의 희곡은 자주 서정적인 양식으로 나타난다. 인물들의 대화는 물론이거니와 지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흔히 희곡은 마음속 극장을 만들어 두고 상상하면서 읽어야 한다고 한다. 작가가 제시한 지문은 우리의 극적 상상을 돕는다. 하지만 지문은 희곡이 연극으로 만들어지는 순간 사라져 버리는 연극제작용 글이다. 허나 배삼식의 희곡에서 지문을 읽노라면 그렇게 축소해서 볼 수가 없다. 지문이 펼쳐내는 이미지가 참으로 서정적인 그림처럼 다가오기 때문이다.

『화전가』에는 음식 먹는 장면이 특히 많다.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본능적인 행위를 넘어서서 사람을 연결하는 정서적인 행동이다. 또한 음식은 프루스트의 마들렌처럼 기억을 소환하는 아주 중요한 매개로 등장하기도 한다.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치유와 연대의 행위가 되기도 한다.

대학생이 된 봉아가 찾는 청보리죽은 연극 시작부터 등장한다. 봉아는 집에 오자마자 독곡할매에게 어린 시절의 기억을 더듬어 보리죽을 주문하고 독곡할매는 청보리쌀을 빻아 열심히 죽을 만들어 봉아에게 준다. 여인들은 경신일 밤, 잠을 자지 않고 고기를 굽고 술을 마신다. 화전놀이를 가기 위해서 흥다리떡은 반죽을 치대고 젖은 면포로 덮어둔다. 늦은 오후에서 밤새 이어지는 음식 노동은 그녀들의 이야

기와 함께 단순히 잠을 쫓기 위한 수단이 아님은 물론이다.

무엇보다 『화전가』에 등장하는 인상적인 음식은 낫선 음식 즉 서양 음식이다. 바로 박실이가 서울에서 가져온 초콜릿과 가루 커피 그리고 설탕이다. 난생처음 먹어보는 커피와 초콜릿은 그들에게는 너무도 낯설고도 황홀한 체험이다. '가심은 별령별령, 눈은 번들번들'해지는 쓴 커피를 결국 이기지 못하고 손바닥 위에 놓인 설탕을 마치 '의식을 치르듯이' 혀로 핥는다.

이때 독곡할매가 흘리는 눈물의 정체는 무엇일까. 시인 조재도가 「좋은 날에도 우는 사람」에서 슬픔의 안쪽을 걸어온 사람은 좋은 날에도 운다고 했다. 독곡할매가 손바닥에 반짝이는 흰 설탕을 핥으면서 설탕처럼 눈물을 반짝이는 이유는 그의 인생이 슬픔과 벅했기 때문일 것이다. 시커먼 커피처럼 쓴 인생은 독곡할매뿐만이 아니다. 태어나 얻은 자기 이름 대신 김씨, 권씨, 흥다리떡, 금실이, 박실이로 살아가는 이들 모두 자기 인생을 머리 위에 얹고 산다. 허나 그녀들은 일상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먹고 떠드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위로를 받고 마침내 삶을 긍정하니, 이 얼마나 단순하고도 아름다운 연대인가. 우리가 사는 삶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올봄 추천하고 싶은 희곡이다.

글\_김영희 경성대 미래인재교양학부 교수, 연극평론가

# 연극에서 무대감독의 역할

한때 부두연극단에서 함께 작업한 적이 있던 후배 연출가이자 부산시립극단에서 무대감독으로 재직했던 정순지 무대감독이 정년퇴임 한다는 소식을 듣고 부산문화회관을 찾았다. 설연휴를 하루 앞둔 2월 8일, 부산문화회관 마당은 봄이 온 것마냥 햇살이 가득하고 한적했다.

부산시립극단 창단 원년 멤버였는데, 그동안 정년퇴직한 사람이 박찬영,故 이돈희, 정마린(정행심) 다음으로 네 번째가 되는군요. 그간 중도 하차한 단원들도 몇 있고 전임 연출, 예술감독도 여러 명 바뀌며 많은 변화와 풍상(?)을 겪은 걸로 아는데 퇴임을 앞둔 기분은 어떻습니까?

— 흥분하다고 할까요, 시원섭섭하다고 할까요? 인생의 황금 시기를 그곳에서 보냈으니 큰 짐을 벗은 기분입니다. 풍상이라고 하셨나요? 연극이 원래 그런 것 아닌가요?

처음에 총무로 발령받았다가 그 후에 무대감독으로 직책이 바뀐 걸로 아는데 스태프진이 없는 시립극단의 구조로 봐서 혼자서 여러 일을 처리한다고 고생이 많았을 것 같은데.

— 예술감독 외에는 정단원이 전부 배우이다 보니 총무일 때부터도 무대감독, 행정업무, 잡다한 살림살이 등을 도맡아서 해야 했으니 좀 힘들었죠. 조직의 구조상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연출을 꿈꾸던 저는 한때 회의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행정 담당 직원, 무대감독보, 훈련장 등 인력이 보충되었으면 합니다.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와중에도 경성대학교 연극영화과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으셨더군요. 논문 제목이 「연극 제작에 있어서 무대감독의 역할 연구」라 무척 흥미롭습니다. 어떤 내용이지?

— 척추에 석화가 생겨 혈관과 신경을 누르니 자주 통증이 옵니다. 그동안 여러 방식의 치료를 병행해서 지금은 견딜 만합니다. 작업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 제3회 정기 공연이었던 <리어왕>을 중심으로 실제 현장의 직무 수행 과정을 연구한 논문입니다. 작업 과정에 있어서 이론과 실체를 대입했습니다. 무대감독에 관한 논문으로는 대한민국에서 제가 처음이라고 하더군요.

부산의 연극 현장에선 '조연출' '기술감독' '무대감독'에 대해서 제대로 된 개념이나 시스템이 없어 무대감독이 조연출도 하고 기술감독 일도 하고, 잡다한 뒤택다꺼리 하는 형태로 운용되고 해요. 26년 동안 전문 무대감독 일을 하셨고 석사 논문도 '무대감독'에 대한 것을 썼으니 앞으로 지역 연극 현장에 정순지 감독만의 노하우를 전수할 계획은 없는가요?

무대감독은 연출을 보좌하면서 같이 작품을 만드는 사람으로 예술적이고 기술적인 리더로 아주 중요한 직책입니다. 부산 연극 현장에도 개념과 시스템이 정립되었으면 합니다. 선생님이 강좌를 개설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후배들을 지도할 생각이 있습니다.

고갑근요. 퇴직(6월 30일)하면 부산 연극 현장에 복귀할 마음이 있습니까?

예. 저는 늘 스스로 평생 연극인이라 자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초심으로 돌아가 연출 작업을 계속해 보고 싶은데, 그동안 현장 분위기가 어떻게 변했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탐색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선은 몸을 좀 추스르고 6월 말에 퇴직하고 나면 아내와 함께 몇 개월 해외여행을 다녀올 생각입니다.



정순지 무대감독



76회 공연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포스터



정순지 무대감독과 이성규 연출가

그동안 시립극단의 무대감독으로 있으면서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망초꽃 향기> 등 3편을 연출했습니다. 은퇴 기념으로 연출하는 작품 소개와 앞으로 해보고 싶은 작품에 대해 얘기해주세요.

톨스토이의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를 각색한 작품으로, 인간의 부질없는 욕망을 '땅'이라는 상징적인 것으로 표현해, 과도한 욕망의 끝은 결국 파멸에 이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탐(탐욕), 진(眞), 치(치리석음)에 끌려든 인간을 풍자하여 진정한 삶의 가치는 무엇인가를 관객에게 반문케 하려 합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쥐스킨트의 「좁머씨 이야기」 한강의 「채식주의자」 등 이후에는 명작 소설을 각색하여 문학성이 짙은 작품을 공연하고 싶습니다.

부산시립극단의 정체성이나 방향성에 대해서 현장 연극인들과 비평가들의 비판적 시각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는 밖에서 피상적으로 보는 것과는 실제 내용이 많이 다르고요, 예술감독이 늘 바뀌는 상황에선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현재 김지용 감독이 시스템을 견고히 쌓고 있으니 앞으로 많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두연극단 시절에 많은 관객을 동원했던 작품이 <19 그리고 80>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었는데 그때는 내가 기획을 맡았었죠. 당시 정 감독이 부산대 앞에서 연기학원을 할 때였는데 그 시절이 그러군요. 지금은 그런 식의 극단 활동은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작비를 지원받지 못하면 작품을 만들기 어렵죠. 연극인들도 직업화되어 생활을 영위해야 하니 여러 가지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어 제시간에 모여 연습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격세지감이 들 겁니다. 현장에 복귀하게 되면 이런 점들을 미리 고려하셔야 할 겁니다.

저도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그때는 단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일종의 동인제 극단이었는데 돈이 없어도 모두들 꽤 열정이 있었고 열심히들 했죠. 열악한 부산 연극 현장 얘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부두연극단이 올해 40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흩어졌던 단원들도 오랜만에 모여 기념식도 하고 기념 공연도 여러 편 공연할 계획이라 정순지 감독에게도 동참을 권했더니 선뜻 언제든 열심히 돕겠다고 대답해주었다. 정순지 무대감독은 퇴임 기념으로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를 3월 14일(목)부터 16일까지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무대에 올린다. 조금의 휴식 기간을 갖고 건강을 회복한 후 부산 연극 현장에서 다시 뜨겁게 만나길 바란다. 제2의 인생을 시작한 그의 건승을 빈다.

글\_이성규 부두연극단 연출가

무대감독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개괄  
적이거나 자료를 좀 남겨 주시면 어떨까요?

### 무대감독의 업무개념

극단은 연극 제작 공연을 하는 단체로서 보통의 경우 제작  
기간이 2개월 반 정도 소요되고 길게는 3개월 정도

소요된다. 무대감독은 그 제작 기간 동안, 제작에 필요한  
여러(종합예술 : 무대 조명 음향 의상 영상 분장 등등) 분야를 지원하고, 공  
연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에는 공연을 진행하며, 공연 종  
료 후에는 무대장치 의상 물품들을 유지 관리하면서 다음  
작품의 연습에 참여하여 연습을 지원하고, 앞의 일들을 반  
복 진행한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1) 연습 기간 : 연출부를 지원하며 연습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한다. 2) 극장 장치물 셋업 기간 : 각 파트(무대 조명 음향영상 의  
상 분장 등등)별 스태프들의 원활한 작업과 안전, 효과적인 무대  
리허설 준비를 위한 관리 감독을 한다. 3) 리허설 기간 : 여  
러 스태프를 잘 운용하여 탁월한 공연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시간 내에 안전하고 원활하게 리허설이 진행될 수 있  
게 한다. 4) 공연 기간, 공연 중 : 전 스태프를 총괄 통솔하여  
공연 진행을 한다. 공연 진행의 원활화에 따라서 공연의 효  
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무대감독의 임무 수행이 매우 중요하  
다. 즉 제 기능으로써의 무대감독의 역할(임무)이 여기서 최고  
로 작용해야 한다. 5) 공연종료 후 : 철수 작업을 총괄한다.  
각 파트별 스태프들이 안전한 질서 속에서 신속하게 작업을  
마무리하도록 하는 게, 주임무이다. 6) 철수 후 : 무대장치 소  
품 의상 기타 물품 등의 보관 및 관리이다.

주요 업무 외에도, 극단은 종합예술 분야라 잡무가 많고  
또한 즉흥적으로 발생하는 상황들 속에서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 일들은 모두 무대감독이 업무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프로덕션시스템(제작 조직단체)에  
서 무대감독은 전 분야에 관계한다.

### 무대감독의 기능

#### 1) 예술 스태프로서의 창조적인 기능

예술 스태프로서 무대감독의 창조적인 기능은 무대예술  
분야의 전반적인 과정의 학습을 통한 지식을 기반으로 모  
든 제작 관련 스태프들을 유기적으로 조화시켜 시·청각화  
에 대한 감각으로 장면에 필요한 이미지를 도출하여 공연하  
는 창조자로서 기능이다. 즉, 무대 위의 시·청각적 환경 장치  
전체를 디자인하는 예술 스태프로서 연출가가 연습장에서  
형상화한 작품을 무대 위에 전환하여 완성된 공연이 되게  
해야 하는 기능이다.

#### 2) 무대 기술 스태프로서의 기술적인 기능

무대장치, 조명기기, 음향기기 등이 극장에 반입되면 무대  
기술에 해당되는 스태프를 분야별로 조합하여 운용하는 기  
술자로서 기능이다. 주로 공연장에 소속되어 있는 무대감독  
이 이 역할을 맡고 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작품에 대한 분  
석이나 정서를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렇게 무  
대감독에 대한 기능은 구분되지만 그 구심점이 되는 것은  
중추적인 무대감독의 역할이다.

### 무대감독의 성격과 리더십

1) 치밀함(세밀함) 2) 책임감 3) 투철한 직업관(가치관) 확립 4) 자  
기관리 능력(냉정함) 5) 입은 닫고 눈과 귀는 열어둬. 자신을 과  
시하지 말고 자세를 낮추고 제작진의 의견을 존중하여 창의  
력을 유발할 수 있도록 해야함 6) 유연한 사고력. 먼저 생각.  
사전계획. 응급 시 대처요령 숙지 안전교육 7) 깊은 사고력(사  
려 깊은) 인격자, 봉사정신 함양 8) 조직력을 갖출 것 9) 유머  
감각을 가질 것 적당한 유머로 좋은 분위기 유도 10) 시간  
관리 능력 11) 기타 소통과 신뢰 배려 등

이상에서 열거한 것들을 머리가 아닌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부산문인협회 정기총회 및 시상식 개최

1. 26.(금) 오후 5시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부산문인협회(회장 이석래)의 정기총회 및 시상식이 1월 26일에 열렸다. 역대 회장인 변중환, 최영구 고문과 부회장단, 이사, 회원들을 비롯해 수상자와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와 성원 보고에 이어 이석래 회장의 개회 선언이 있었다.

정기총회에 앞서 열린 시상식에서 공로상은 이경우 시인이 수상했다. 2023년도 월간 『문학도시』 작품상은 도상태(시) 우창수(시) 박원형(시) 최성아(시조) 강인수(소설) 이상동(수필) 박시원(수필) 선용(동시) 작가가 수상의 영

예를 안았고, 신인문학상은 시 부문 박인자 외 9명, 소설 부문 장원식 외 1명, 수필 부문 선영숙 외 13명, 아동문학 부문 권옥숙 작가가 받으면서 등단했다. 2023년도 신입회원으로 들어온 김금분(시) 외 32명의 무대 인사도 있었다.

감사보고에 이어 정기총회 안건으로는 ▶2023년도 사업 결과 및 결산보고 승인의 건 ▶2024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 승인의 건 ▶부산문인협회 정관 수정 변경 건 등이 있었고 모두 승인됐다. 올해도 부산문인협회는 월간 『문학도시』 발간, 부산문인대사전 발간, 제3회 부산문인의 날, 제13회 부산국제문학제, 제28회 한국해양문학제, 제31회 부산문학상, 시민문예강좌 작고문인 재조명 행사, 제38회 부산청소년예술제 ‘청소년시 낭송대회’, 제62회 부산예술제 ‘제11회 지역문화교류전’ 등을 통해 부산이 ‘문화예술의 도시’로 발전하게끔 이바지할 예정이다.

## 부산무용협회 제62차 정기총회 개최

2. 24.(토) 오전 10시 그린나래호텔 6층 동백홀



부산무용협회(회장 김갑용)가 2월 24일 해운대 그린나래호텔 6층 동백홀에서 제62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성원 보고, 개회 선언 등에 이어 먼저, 사회자의 2023년도 사업실적 보고로 지난해 1월 열린 동계강습회부터 12월 열린 제27회 새물결춤작가전까지 13여 개의 사업에 대해 돌아본 뒤 김정경·조현영 감사가 감사보고를 했다. 정기총회 안건으로 상정된 ▶2023년도 사업결산 보고 및 승인 ▶2024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은 모두 승인됐다. 부산무용협회의 발전에 기여

한 이에게 주어지는 ‘올해의 무용인상’은 한철선(부산SJ빌레단 대표, 부산발레협회 상임이사), 박연정(이팝댄스컴퍼니 대표)가 받았고, 참석자들과 18여 명의 신규회원들은 서로 인사하는 시간도 가졌다.

부산무용협회는 부산무용계 발전과 저변확대를 위해 제38회 청소년 무용경연대회, 제20회 BIDE 열린 무대, 제33회 부산무용제, 2024 하계 강습회, 제62회 부산예술제 ‘부산무용예술제’, 제28회 새물결춤작가전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 부산건축가회 제63차 정기총회 및 제17회 부산건축상 시상식 개최

### 2. 21.(수) 오후 4시 윈덤 그랜드 부산 3층 마레홀



부산건축가회(회장 이봉두)가 제63차 정기총회를 2월 21일 윈덤 그랜드 부산에서 개최했다. 제17회 부산건축상 시상식도 이날 함께 열렸다.

먼저 제62차 정기총회 결과서가 승인됐고 2023년도 사업보고는 활동 영상 상영과 함께했다. 2023년도 감사보고가 끝난 뒤 ▶2023년도 결산보고 및 승인의 건 ▶2024년도 사업계획(안) 승인의 건 ▶2024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 ▶부산건축가회 운영규칙 및 지침 개정의 건 ▶임원개선의 건(수석부회장 및

감사) 등의 안건이 상정됐고, 김두진(일산설계종합건축사사무소) 수석부회장이 추대되는 등 모두 승인됐다. 부산건축가회가 운영하는 건축문화연구센터 정기총회 또한 열리면서 감사보고, 안건 상정 및 승인됐고 부산의 건축문화 발전과 진정한 건축인을 위한 센터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게 했다. 제17회 부산건축상 시상식은 2023년 부산건축가회가 했던 활동 영상 상영으로 막을 열었다. 내빈 소개, 축사, 환영사에 이어 가장 먼저 부산의 건축문화 발전에 공로가 큰 건축 인사에게 주어지는 '공로상'은 허동윤(삼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안현조(부산건축가회)가 공동 수상했다. 건축가로서 부산지역에서 추구해 온 건축적 과정과 입장을 파악하고 미래에 대한 독창적인 사고와 새로운 방향 시사 등 건축 활동에서 뚜렷한 성과를 보인 이에게 시상하는 '올해의 건축가상'은 김용남(삼현도시종합건축사사무소)이 받았다. 유능한 젊은 건축가의 발굴·지원·육성을 목적으로 창작·연구·교육 및 사회지도 등 광범위한 건축 활동 중 특정 분야에 있어 뚜렷한 작품·성취·공적·발전 가능성에 대해 시상하는 '신인건축가상'은 최세별(건축사사무소 1458)이 받았다.

## 부산사진작가협회 제63차 정기총회 개최

### 2. 24.(토) 오후 2시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부산사진작가협회(회장 강종관)의 제63차 정기총회가 2월 24일 부산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열렸다.

성원 보고, 개회 선언 등에 이어 열린 시상식에서 제25회 부산사진문화상 '문화상'은 제경성이 수상했다. '공로상'은 김태만 김석중 조순덕이 받았고, 부산사진대전 초대작가 인정서는 이양상에게 주어졌다. 강종관 회장은 인사말에서 "저희 집행부는 회원님들과 더불어 소통하고 협력하여 더 나은 사협 부산지회로 성장하고, 부

산의 사진 예술계를 선도할 수 있는 긍정적인 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라고 전했다.

감사보고, 2023년 제62기 결산보고 및 승인 등에 이어 2024년 행사 및 사업계획서(안)이 상정되어 행사계획(안), 예산(안) 등이 상정, 통과됐다. 부산사진작가협회는 부산전국사진강좌 실시와 더불어 4월 제38회 청소년예술제 학생사진공모전, 6월 제35회 부산사진대전, 9월 제36회 부산전국 사진공모전 등 다양한 기획과 행사로 부산 사진문화 구축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유영욱 전 부산음악협회 회장  
'2023 한국음악상' 수상**

한국음악협회(회장 이철규)가 1월 25일 대 한민국예술인센터에서 개최한 '2023 한국음악상' 시상식에서 유영욱 전 부산음악협회 회장(UM양상블, 아트체인팩토리 대표)이 본상을 공동 수상했다. 유 전 회장은 부산음악협회 제16대 회장(2020-2022)을 맡아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지역 음악계를 위해 열정적인 활동을 펼친 성과를 인정받았다. 1979년 제정된 한국음악상은 매년 그해의 음악계를 정리하고 국내외 음악 발전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해 시상하는 상으로 본상, 공로상, 젊은음악가상, 꿈나무상, 우수지회상 총 5개 부문으로 나뉘어 시상한다. 유 전 회장이 받은 본상의 공동 수상자는 음악 부문 △윤영문 광주예술의전당장 △원영석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음악과 교수 △정종보 한국음악협회 울산광역시지회장 등이다.



**시네바움  
3월 강좌 안내**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시네바움**

시네바움의 3월 첫 강좌는 김형찬 대중음악저술가의 '박인수 사건-미니스커트 상륙기'. 그의 저서 『한국대중음악사 산책』을 중심으로 1960~70년대 대중음악을 조망한다. 시네마 안노운: 보이지 않는 영화들에서는 한센인들의 거주지 성심원이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통로였던 철선을 다룬 다큐멘터리 김지근 감독의 영화 〈철선〉에 대해 김영광 평론가의 이야기를 듣는다. 이왕주 부산대 명예교수는 '틀뢰즈의 리좀 이야기'에서 고중세의 본질철학과 근대의 주체철학을 동시에 넘어서는 관계 철학에 대해 들려준다. 마지막 강좌는 정병언 부산대 영어영문학과 교수의 '롤랑 바르트의 매혹적인 글쓰기'다. 둘째셋째 금요일 중구 우동불에서는 중국어로 낭독하는 당시 삼백수 프로그램도 계속된다.

문의 010-2774-3455



**BSO솔로이스츠  
체임버시리즈**

**3. 6.(수) ~ 7.(목)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BSO) 솔로이스츠 연주자들의 집중력과 역동적인 에너지를 감상할 수 있는 연주다. BSO는 지난해 창단 30주년을 맞아 특별기획공연으로 솔로이스츠 공연을 선보였다. 올해는 체임버시리즈로 관객들과 만날 예정이다. 클래식 예술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리는 의미있는 역할을 지속하고 있는 BSO 솔로이스츠는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서로의 이야기로 엮어가고 있다. 6일은 '목관5중주 & 금관5중주'로 이주형(FL) 박시연(OB) 백동훈(CL) 등이 출연해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 모음곡, 에발트의 〈금관5중주 제1번 작품5〉 등을 연주한다. 7일은 '현악6중주 & 현악8중주'로 김주영(VN) 박은경(VN) 진혜빈(VN) 등이 브람스의 〈현악6중주 제1번 Bb 장조 작품18〉 등을 연주한다.

문의 051)621-4577



### 4th 윤민우의 더블베이스쇼

3. 8.(금) 오후 7시 30분  
스페이스움

533회 스페이스움 음악회는 윤민우의 더블베이스 쇼 '초심'이다. 연주곡은 헨리 에클스의 「더블베이스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로시니의 「첼로와 더블베이스를 위한 듀엣」 등이다. 아모스 앙상블 음악감독 맡고 있는 윤민우는 부산체임버오케스트라, 움 챔버오케스트라 수석단원, 센토 챔버오케스트라 앙상블 플리르·주에 베이스 앙상블 앙상블 블루 단원 등 활발한 연주 활동을 펼치고 있다. 연주를 위해 오페라 반주 및 앙상블 연주회 등에 참가한 조아라(피아노), 프랑스 국립음악원에서 최고연주자 과정을 마친 차호철(클라리넷), 영남 국제현대음악제 등에서 연주한 황민혁(첼로)이 함께한다.

문의 051)557-3369



### 연극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나랴>

3. 1.(금) ~ 9.(토) 오후 7시 30분  
(토 오후 4시/일 공연 없음)  
공간소극장

공간소극장 개관 20주년을 기념하는 첫 번째 공연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나랴> (작가 최인훈)을 공연예술창작집단 어니언 킹 전상배 연출가가 무대에 올린다. 극은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설화에 기반해서 로를 운명처럼 받아들인 두 사람을 주인공으로 한다. 그러나 설화의 민중적 영웅상 제시에 그치지 않고 정치적 희생양이 되는 온달(김정환 배우)과 평강공주(이태경 배우)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권력과 인간의 관계를 새롭게 조명하고, 비극 속에서 탄생하는 '고양된 삶의 의지'를 경험케 한다. 전상배 연출가는 "신비한 사랑의 인연은 한 편의 비극이 되고 비극이 된 부조리함은 한 편의 시가 되는 연극"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간소극장은 20주년을 맞아 '공간 연출 동인 1기'를 출범하며 연극 창작활동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문의 051)611-85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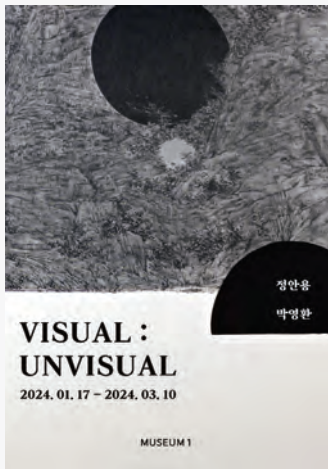


### 강혜은 전

~ 3. 9.(토)  
맥화랑

해운대 달맞이길에 위치한 맥화랑이 강혜은 작가 초대 개인전을 연다. 강 작가의 작품은 언뜻 보면 실인지 물감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실처럼 가늘고 긴 색 선들이 층층이 쌓이고 겹치면서 화면을 가득 채운다. 이는 그가 10년의 시행착오 끝에 완성한 물감에서 실을 뽑아내는 기법이다. 물감 덩어리를 손가락의 힘만으로 짜내서 전체적인 형태와 색감을 조화시킨 작품은 마치 옛 여인들이 베를 앞에 앉아 옷감을 짜던 것을 연상시킨다. 이번 개인전은 독특한 기법으로 어떠한 형태를 만들던 기존의 결과물에서 나아가, 그렇게 만들어 냈던 색채와 형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자 한다. 그림으로써 '작업을 하는 행위' 그 자체에 집중해 더욱 생동감 넘치는 작품을 만나게 한다.

문의 051)722-2201



**VISUAL :  
UNVISUAL**

~ 3. 10.(일)  
뮤지엄 원

‘VISUAL : UNVISUAL’은 정안용·박영환의 시선으로 비가시적인 감정이나 추억, 기억 등에 집중한 작품들이다. 정안용은 일시적으로 존재하지만 금세 사라지는 연기를 활용해 작업하며 이를 통해 존재의 의미를 묻는다. 풍경들에서 삶의 궤적을 나타내는 박영환은 시간의 썩어 쌓인 현재를 희미한 구체의 형상으로 표현한다. 존재 이면의 보이지 않는 경험과 가치에 대한 관심은 사회학, 철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 논제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추상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존재하는 것을 주목해 실체가 없는 존재들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는가에 대해 질문하며 그 경계는 어디까지인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문의 051)731-3302



**헬(Her)  
- 피어나다**

3. 4.(월) ~ 10.(일)  
집스튜디오

세대로 작업방식도 모두 다른 4인 4색 여성작가들의 전시가 열린다. 전시를 주최한 집스튜디오(대표 이동준)는 수제화 커스텀 브랜드로 시작해 아트 기획 및 디렉팅으로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작년 한 해 지역 신진작가를 위한 아트페어 개최, 국내 전시 10개, 국제 전시 3개를 주최 및 참여했다. 이번 4인전은 범일동에서 전포카페거리 부근으로 이전 후 첫 전시다. 정현채, 장지예, 박경미, 정다솜 작가는 각각 사랑, 재능, 꽃, 상상의 피어남을 시각화했다. 회화·조소·플라워아트·일러스트레이션 등 표현 방법도 다양하다. 다루는 주제도 작업방식도 다르지만, 봄이 다가오는 계절에 걸맞은 산뜻함을 지닌 이들의 작품이 봄처럼 피어나리란 점은 같아 보인다.

문의 010-9509-0341



**HELLO 展**

~ 3. 15.(금)  
갤러리 아트슌

갤러리 아트슌의 ‘헬로’전은 2024년 푸른 용에게 보내는 인사 “HELLO”다. 강지호 김성수 김세현 김혜인 루씨썸 미미 박현진 이효선 임주원 최미정 최은희 토아치 한상윤 황혜영 14인의 작가가 참여했다. 그중 최은희 작가의 「transition」 시리즈는 어릴 적 ‘자연’ 수업 시간에 꽃의 씨앗 색이 다 똑같다는 충격, 그리고 ‘씨앗은 뿌리가 생기면서 물감 주머니를 가지게 되었을 것’이라는 상상에 기반해 시작했다. 까만 씨앗이 저마다의 물감 주머니를 갖게 되듯 개인의 가능성에 대해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한다. 전시 관계자는 “고민의 흔적들을 작품에 담아내어 관객들과 소통하는 ‘프로 예술가’들이 만들어 낸 작품은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이처럼 매력적인 작품들과 함께 당신의 2024년이 빛나기를 소원한다”고 밝혔다.

문의 051)731-0780



## 일상의 온도

~ 3. 17.(일)  
에임빌라

눈을 거스르지 않는 색감의 테이블상과 소파, 무심한 듯 시선을 끄는 벽에 걸린 미술작품이 누군가의 거실을 옮겨 놓은 듯 자연스럽다. 일상의 온도는 오브제후드갤러리와 에임빌라가 공동으로 기획한 전시로, 10여 명의 공예가, 회화작가의 작품과 시간을 머금은 빈티지 디자인 가구의 온기로 채워진 공간을 감상할 수 있다. 서로 다른 관점과 시간을 견뎌 만들어진 물성들은 우리 삶 속에 스며들어 더욱 빛나게 하는 도구가 된다. 나의 공간, 나의 삶을 채울 다양한 작업의 결과물과 눈을 맞출 수 있다. 이번 전시에는 특별히 에임빌라 정계원 대표의 디자인 에임미러 뉴라인도 만날 수 있다.

문의 051)747-0514



## 바로크양상블 동백 음악의 정원 시리즈Ⅳ 물망초

3. 17.(일) 오후 5시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바로크양상블 동백]은 2022년 창단했다. 정원 속 꽃들이 가지는 수많은 이야기를 바로크 음악과 접목하여 '정원시리즈'라는 테마로 바로크 음악의 아름다움을 관객에게 선보이고 있다. 정원시리즈의 네 번째 테마는 물망초로,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오르페오를 맞이한 에우리체와 예루살렘 높은 산에 올라 순종을 다짐하는 예프테의 딸, 골고다를 향하는 예술의 눈 등은 우리에게 물망초처럼 먹먹한 시간을 흐르게 한다. 소프라노 김민혜 이민정, 메조소프라노 이지영, 카운터테너 김대경, 테너 최원갑, 베이스바리톤 박순기 등이 출연해 바흐의 <오라, 달콤한 십자가여> 클라уди오 몬테베르디의 <나는 검게 그을렸습니다> 등을 들려준다.

문의 010-5474-36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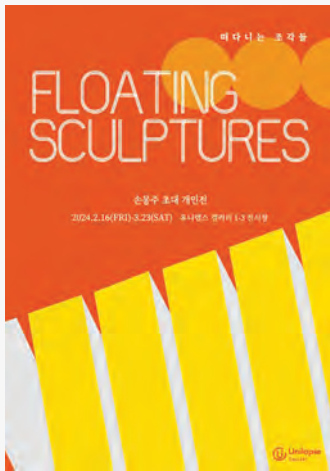


## 송협주의 SeinII와 메타판화전

3. 7.(목) ~ 20.(수)  
미광화랑

송협주 작가는 지난해 8월 개인전을 통해 '메타판화'라는 실험적이고 새로운 시도를 선보였다. 미광화랑에서 개최하는 'SeinII와 메타판화전'에서 그는 또 한 번 자아를 찾는 여정을 떠난다. 모자, 종이비행기, 사과 등 사소한 데브리(Debris, 즉 기억의 산물)이거나 파편의 이미지는 자아의 메타포로 활용된다. 그는 판화지를 캔버스에 배접해 회화적인 요소와 접목하고 아날로그 판화작업방식에 디지털 방식을 더한다. 초기 이미지에 색을 덧칠하고 굵어내는 과정에서 다른 이미지가 생성되고, 같은 과정을 반복해 또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한다. 작가는 "자아는 나의 생각과 실천으로 늘 새롭게 탄생하는 것"이라 말한다.

문의 051)758-2247



**떠다니는 조각들 :  
Floating Sculptures**

~ 3. 23.(토)  
유니랩스 갤러리

손몽주 작가의 개인전이 지난해 8월 수 영구에 개관한 유니랩스 갤러리에서 열린다. 작가는 부산대학교 미술학과 박사 및 런던 첼시 예술대학교 파인아트 석사를 졸업하고 다수의 개인전과 부산비엔날레, 광주비엔날레, ACC 파빌리온 프로젝트 등에서 대형 전시를 선보여 왔는데 '2023 바다미술제'에서는 「일광스윙」으로 대중성과 실험성을 겸비했다는 평을 받기도 했다. 이번 전시는 연속되며 유연한 움직임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소품과 신작으로 구성되며, 사이즈 측면에서 이전과 달리 소담하다. 그는 “앞으로도 관심을 두고 진행할 생명과 움직임의 순간들, 반복의 힘, 리듬 조각들의 실험과 모형”이면서 “쉽 없이 반복되는 삶의 동력과 모티브적 표현”이라고 작품을 설명한다.

문의 051)711-7189



**키즈 클래식 콘서트  
오즈의 마법사**

3. 23.(토) 오후 5시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재)부산문화회관이 꼬마 관객들을 위해 마련한 클래식 공연 시리즈다. 다양한 등장인물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예술적 감성이 쑥쑥 자라난다. 3월에는 바이올리니스트 박소연이 이끄는 엘 콰르텟이 〈오즈의 마법사〉를 주제로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과 재미있는 이야기로 무대를 가득 채운다. 클래식 연주자뿐 아니라 배우, 성악가, 발레리나까지 등장해 꼬마 관객들의 호기심 가득한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줄 예정이다. 엘 콰르텟은 풍부한 감성 표현과 섬세한 연주로 깊은 감동을 선사하며 클래식 연주를 기반으로 무용, 연극, 미술 등 다채로운 예술을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여 왔다. 관람연령 5세 이상.

문의 051)607-6000



**부산네오파하모닉오케스트라  
제79회 정기연주회**

3. 23.(토) 오후 6시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부산네오파하모닉오케스트라는 2009년 7월 창단해 소규모 앙상블 공연과 찾아가는 음악회, 정기연주회 등으로 관객과 만나며 ‘느리게, 그러나 곧게...’ 최고 수준의 음악을 창조하는 높은 이상을 꿈꾼다는 목표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제79회 정기연주회는 새봄을 맞아 ‘봄, 어느 멋진 날에’로 바리톤 김동규가 출연해 풍성함을 더한다. 공연에서 〈무정한 마음〉〈The Phantom of the opera〉〈신고산 타령〉 등 가곡부터 뮤지컬 넘버, 민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곡들을 연주하며 새 희망을 노래할 예정이다. 흥성택의 상임지휘로 바리톤 김동규와 여성 솔리스트 앙상블 디케미올라가 함께한다.

문의 010-3544-7308



## 김영미 사진전 '내 안의 골목'

3. 8.(금) ~ 24.(일)  
갤러리수정

김영미 작가는 갤러리수정 사진아카데미 포트폴리오반을 수료하고 각종 단체전에 참여했다. 첫 개인전 '내 안의 골목'은 오래된 골목과 그곳의 주택들처럼, 평범했지만 세월이 흐름에 따라 오히려 특별해진 듯한 공간을 주제로 한다. "좁은 길, 창문에 얽은 햇살, 색 바랜 담장, 작은 풀꽃, 골목에서 마주하는 평범하고 소소한 것들이 나의 시선을 머물게 하고 내면의 온기를 채워준다"는 작가의 말마따나 그의 작품에는 이유 모를 포근함과 따뜻한 느낌이 느껴진다. 윤창수(사진작가, 윤이출판 대표)는 "그녀의 사진에는 희로애락의 표현이 약간의 침전 상태로 표현되어 있다. 그러한 감정의 질감은 마치 물감을 두껍게 발라 표현하는 유화의 마티에르가 느껴질 정도"라고 평한다. 오픈식은 9일 오후 5시다.

문의 051)464-6333



## Life...삶...La vie전

3. 1.(금) ~ 24.(일)  
부산 프랑스문화원ART SPACE

'Life...삶...La vie'전은 이상권 작가의 개인전이다. 앵무새, 얼룩말, 늑대, 표범 등 동물을 주로 그렸고 사람의 모습도 간혹 보인다. 독특한 것은 마치 눈동자가 살아 움직이는 듯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동물들의 세밀하고 섬세한 표현과는 달리, 인물은 차갑게 굳은 돌상의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는 현대인을 바라본 작가의 시선이 압축되어 보여지는 부분으로 돌상은 두 경향의 인물상을 대변한다. 주변 환경에 맞춰 수동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자신을 조각하는 인물과 자신이 원하는 대로 타인을 조각하는 인물이다. 더불어 비유적 표현을 통해 인간중심적 생각을 깨트리고 다양한 존재들의 관점을 드러낸다.

문의 051)746-0055



## 기쁜 소식展

3. 1.(금) ~ 30.(토)  
갤러리 마레

갤러리 마레는 3월 한 달 동안 이정철, 이정자 작가의 '기쁜 소식'전을 개최한다. 이정철 작가는 여백을 바람이라는 부제로 표현한 '바람의 흔적' 시리즈를 선보인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작가는 그러한 바람을, 빈 공간이지만 비어 있지 않은 작품 안의 여백에 표현하며 의미를 부여했다. 한지에 채색한 종이 또는 명함 등을 겹겹이 잘라 붙이거나 돌로 갈아 만든 석재를 사용하는 방법 등을 통해 '바람'은 독특한 마티에르로 구현되어 시각화된다. 보통 주요한 표현 대상이 되는 색색깔의 꽃과 나무 너머의 바람(여백)을 느끼게 하는 작품은 보이지 않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며, 이러한 의미 부여는 대상과 관찰자 사이에 소통의 수단을 만들어 가는 것으로도 보인다.

문의 051)757-1114



## 우리들의 상상으로 그리는 태극기 이야기

~ 3. 31.(일)

부산민주공원 민주항쟁기념관 3층

아이들의 순수하고 풍부한 상상력으로 그린 그림에는 생각지 못한 색채와 이야기가 담긴다. 부산민주공원 특별전시 '우리들의 상상으로 그리는 태극기 이야기'는 아이들의 태극기 그림을 통해 새로운 시각과 사회의 모습을 들여다본다. 전시는 네 가지 파트로 나뉜다. '우리들의 그림이야기Ⅰ'은 2023년도 제10회 삼일절 맞이 어린이 태극기 그리기 대회 수상작 전시, '우리들의 그림이야기Ⅱ'는 제9회~제10회 삼일절 맞이 어린이 태극기 그리기 대회 수상작 영상 콘텐츠 상영, '상상으로 나는 태극기'는 자유로운 상상에 기반하는 체험이다. 마지막 '함께 그리는 태극기'는 3월 10일까지 제11회 삼일절 맞이 어린이 태극기 그리기 대회 현장 접수를 받는다.

문의 051)790-7417



## 백승미, 시선이 머물다

3. 2.(토) ~ 31.(일)

갤러리한스

풍경화를 단순화시켜 추상화로 그린다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작가는 생각을 이끌어 가며 캔버스 위에 붓을 이리저리 움직여 보여지는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 가끔은 정답이 없는 문제를 푸는 것과 사랑만 가지고 자식을 키우는 어미의 마음과 같다고 고백한다. 그리고 주체가 되는 대상에 주는 시선이 아니라 그 대상을 만들어 내는 그 이외의 것에 의미를 담고 이야기를 만들며, 모종의 여유와 작품 속 상상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단순화 작업에 몰입한다. 작가는 작품 속 여백의 시선을 따라 상상 속으로 들어가 복잡하고 시끄러운 세상에서 잠시라도 벗어나 '또 다른 시선'으로 조금 쉬어가는 한 포인트로 '작품명'하기를 바란다.

문의 010-4574-0660



## 권재나 'Color Flow'

3. 5.(화) ~ 4. 6.(토)

갤러리이름

작가는 입체 작품인 '언플딩' 시리즈를 통해 차원, 평면을 넘어서는 새로운 공간성을 제시한다.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극복하고자 하는 작가의 상상력은 다양한 색채와 형태를 지닌 언플딩 입체 작품으로 재현되었다. 추상이 형태 속에서 핵심요소만을 발췌하였거나 비물질적, 모호한 개념에서 의미를 이끌어냈다고 한다면 작가는 추상의 과정에서 자신만의 어휘를 조합해 낸다. 이번 전시는 작가가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세계의 연장선으로 겹겹이 쌓아 올린 레이어의 탐구를 3차원으로 한층 더 확장한다. 작품 속 접히고 펼쳐진 구조물은 자유의 반영이자, 추상이라는 장르를 통해 작가 던지고자 하는 핵심 질문이다.

문의 051)743-0059



## The Petrified Dream

~ 4. 13.(토)  
갤러리이베

무한한 공간의 영원한 침묵은 인간들이 환원하고자 하는 지평이자, 두려움과 편안함을 넘어서는 경이로운 순간이 된다. 대자연의 범위를 넘어서 우주라는 무한의 차원에서 이러한 지평에 도달하고자 하는 유명군 작가의 초대전 'The Petrified Dream'가 갤러리이베 제1·2전시실에서 열린다. 미국으로 이주한 후 10여 년간 다양한 지질환경과 자연경관에서 영감을 받고 이를 캔버스에 담고자 한 작가의 작품은 깊은 지층에서 볼 수 있는 뿌리의 세계, 혹은 생명의 원초적 세계와 같다. 끊임없는 재료 연구와 실험으로 자연에서 볼 수 있는 감동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마티에르를 구현해 내고자 한 결과다. 대형 규모의 작품은 관람객에게 태초의 시간과 공간으로의 회귀를 경험케 한다.

문의 051)756-2111



## 김지오 '감각성형'

3. 7.(목) ~ 4. 20.(토)  
제이무브먼트 아트스페이스&갤러리

멀티미디어를 활용해 논리의 시각화를 실천하는 개념미술가 김지오 작가의 개인전이 열린다. 그는 기호와 (메타)언어, 장소와 건축, 감각과 구조, 음악적 현상과 행위 등에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분야와의 협업을 시도해 왔다. 주로 이미지를 단위로 한 '형태소' 시리즈, 정보 이미지들의 조합 '안드로이드' 시리즈, 각종 오브제를 결합하는 '브리콜라주' 작품 등이다. 이번 전시는 2018년부터 단체전 등을 통해 발표했던 '감각성형'을 다루는 첫 개인전이다. 가상의 '인간 증강' 기술인 감각성형의 개념 및 세부 성형술로서 리듬감 성형에 관한 내용을 회화·영상·설치 작품을 통해 제시한다. 특히 리듬감 성형 시술자의 페이크 다크 형식 인터뷰와 광고형 영상 등도 눈길을 끈다.

문의 051)622-91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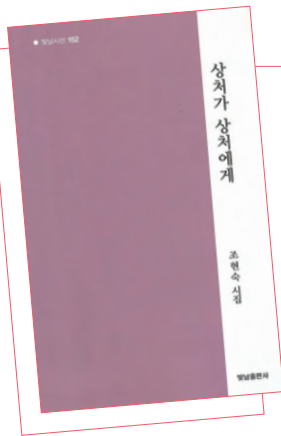


## 신수혁 '임계점'

3. 11.(월) ~ 4. 20.(토)  
데이트갤러리

단색화와 전위예술을 중심으로 한 현대미술을 전시하는 데이트갤러리가 신수혁 작가의 개인전을 개최한다. 작가는 직접 경험해온 인간과 장소, 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고찰을 수많은 레이어를 통해 캔버스 위 끝없는 평면으로 선사한다. 전시명 '임계점'(臨界點, Critical Point)은 열역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상평형이 정의될 수 있는 한계점이며, 그 지점을 넘으면 상의 경계가 사라진다고 한다. 작은 붓으로 스트로크를 반복해 화면을 채우고 같은 작업을 반복해 레이어가 겹치다 보면 어느 순간 2차원과 3차원의 경계가 허물어지며 독특한 질감의 균형적 화면이 모습을 드러낸다. 작가는 이러한 과정에서 처음(과거), 현재(지금), 미래(그다음)의 순간들을 동시에 머금은 듯하다.

문의 051)758-9845



**상처가 상처에게** 조현숙 / 빗남출판사

‘조기를 손질한 뒤 도마를 씻다가/칼자국 무수한 도마의 몸을 본다/다져지고 으깨지고 질러 나간 흔적들(‘도마’ 중)과 ‘기어코 살아남은 그 질긴 섬유질이/한때 푸른 머리를 공중에 나부끼며/하늘과 바람과 햇살을 품었던/무청의 마지막 자존심 같아서/시래기로 불리기 전/그의 마지막 눈물을 생각해 보는’(‘시래기론’) 시인의 마음을 헤아려 본다. 어떤 소재에 반응하고 어떤 단어에 끌리는지 찬찬히 시를 읽는 자신을 응시하다 보면 문득 나에 대한 깨달음에 이르기도 한다. 문학평론가 정훈은 ‘농담처럼, 때로는 철학처럼 천변만화하는 이 세상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시인은 삶이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 삶이 처한 비극을 어떤 방식으로 수용해야 부끄럽지 않은지 그 윤리적인 물음을 던진다’며 시인의 작품을 안내한다. ‘마른 몸속에서 우러나오는 바다/한 그릇 국물을 위해/한 생의 깊은 바다 속을 쏟아 놓’(‘별치’)듯이 풀어낸 시인의 두 번째 시집이다.



**꽃길을 간다** 신향원 / 책퍼냄 열린시

‘동래 차밭골/금어사 경내에/허리 굽은 소나무/해묵은 능소화//거꾸로 매달려/법문을 들고/종달새 종종걸음/마당을 휘젓고 다닌다//까마귀 부산한/날개짓 하며/여기서 저기로 그네를 타니/나무들이 멀미를 한다//뜰안에 차나무/솔향기와 입맞춤하고/뒷도랑 물소리/천수경을 읊어 낸다’(‘거꾸로 매달린 능소화’) 연담꽃예술원 원장이며 아트플래워 명장인 시인의 작품은 한 행 한 행 영상처럼 풍경이 눈앞에 또렷이 그려진다. ‘진달래꽃 봉오리들은/남 먼저 가져온 보랏빛/제비꽃 눈치를 보며/그 꽃길을 흔들리며 간다’(‘꽃길을 간다’ 중) 강영한 시인은 ‘말하지 않아도 마음과 마음이 통해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이심전심을 나타내는 염화시중의 미소를 들어 ‘겨울에 몰아치는 시련을 이겨낸 진달래꽃이 꽃으로 피어 활짝 꽃길을 열어 그 길을 흔들리며 가는 모습이 깨달음으로 가기 위해 애쓰는 자신의 모습을 비추는 타자임을 인식’한다며 시인의 시세계를 안내한다.



**버섯집에 달이 떴네요** 박옥위 / 도서출판 두손컴

‘늦가을 쑥부쟁이 하얗게 눈을 뜬다/파란젓니 몇을 손가락 펴듯 하기//시란 흑/그런가 싶어/돌아가서 또 본다//가을에는 꽃들도 시를 쓰고 싶은 게지/청 푸른 하늘에 구름동동 띄워 놓고//기러긴/춤을 추는데/꽃은 시를 못 쓸까’(‘시(詩)가 그런가 싶어’) 시인은 또 ‘시나 시조를 잘 쓰는 시인들은 공통점이 있다. 시적 대상을 잘 포착하는 직관, 예민한 관찰력, 적절한 시어 선택, 그리고 그 시인의 인생관 세계관 폭넓은 지식 통찰력 등으로 시를 포획하는 그 정확하고도 민첩한 상상력을 가진 시인들의 시는 쉽고도 감동적으로 다가와 우리에게 전율을 느끼게 하고 삶의 의미를 새롭게 전달하는 것’이라고 소개한다. 열세 번째 시조집을 펴낸 시조 시인은 ‘돌담을 기어오른 호박잎 사이에/철늦은 애동이가 방글 웃고 앉았네/사랑은 그렇게 와서 제 몫(‘몫’)을 다하듯이 쉽지는 정진으로 우리 삶 속에 그리움과 서정의 꽃을 피운다.

2024년

# 예술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중

## 모집일정 및 수강기간

모집일정 수시모집 또는 분기별 모집  
누구나 신청가능

수강기간 2024년 1 - 12월 (3개월씩 모집)  
(1분기 1-3월, 2분기 4-6월  
3분기 7-9월, 4분기 10-12월)

## 수강신청 및 문의

전화 및 방문접수  
계좌번호 부산은행 310-01-001290-2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문의전화 070-7747-0396

순번	프로그램명	모집인원	요일 및 시간	장소	수강료
1	팡팡노래교실	200명	화) 13:30-15:30	1층 공연장	* 3개월 3만원
2	한국무용교실	20명	목) 13:00-14:50(심화반)	4층 연습실	3개월 9만원
3		20명	목) 16:00-17:50(기초반)	4층 연습실	3개월 9만원
4	아랑고고장구	20명	수) 13:30-15:00	2층 연습실	3개월 9만원
5	댄스스포츠	20명	화,목) 10:00-10:50	4층 연습실	3개월 9만원
6	라인댄스	20명	화,목) 11:00-11:50	4층 연습실	3개월 9만원
7	웰빙댄스	20명	월) 10:00-11:30	4층 연습실	3개월 9만원
8	너도나도 방송댄스	20명	수) 10:00-11:50	4층 연습실	3개월 9만원
9	가곡교실	20명	수) 12:00-13:30	2층 연습실	* 3개월 15만원
10	수채화교실	10명	화) 10:00-11:50	4층 회의실	* 3개월 15만원
11	통기타 반주법과 연주	20명	수) 16:00-17:50	4층 회의실	* 3개월 15만원
12	스마트폰 사진교실	20명	목) 10:00-11:50	4층 회의실	* 3개월 15만원

\* 수강료 외 재료비, 반주비, 교재비 별도

\* 일정 및 수강료의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산예술회관

MECENAT & SUBSCRIPTION

부산의 예술문화를 사랑하는 당신을 메세나로 모십니다.



메세나 광장 MECENAT

『예술부산』은 메세나가 되어주신 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그동안 기반을 닦았습니다. 『예술부산』과 함께 부산의 예술 문화 발전에 앞장서는 동반자가 되어주실 메세나를 찾습니다.

정기구독 SUBSCRIPTION

월간 『예술부산』은 부산 시민과 예술문화인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가고자 합니다. 서면 영광도서에서 해당 호를 구매할 수 있고(정가 5,000원) 1년 정기구독을 신청하면 50% 할인된 금액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메세나 광장

방성빈 BNK부산은행 은행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예술부산』을 후원하는 광고주가 되시면  
첫째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1항 5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1항 5조에 의거하여 세제혜택을 드리며,  
둘째 사단법인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에서 주최하는 모든 문화행사에 우선적으로 초대하고,  
셋째 월간으로 발간되는 『예술부산』을 보내드립니다.

『예술부산』 정기구독 신청

전화 051)612-1372  
팩스 051)631-1378 또는  
이메일 artbusan1997@naver.com을 이용하여  
구독신청을 하시고 1년간 구독회비 30,000원을  
입금하시면 해당 호부터 보내드립니다.  
부산은행 101-2024-8255-00  
예금주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예술부산』은 여러 장르에 걸친 예술문화의 향기를 더욱 많은 회원들과 나누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역사박물관

# 우리 자본시장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위 치 | 부산국제금융센터 (BIFC) 51층

방문 전 관람문의 (051-662-2559)

관람료는 무료이며, 토/일 ·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금융을 편리하게  
미래를 풍요롭게

기본을 지키는 **바른 금융**  
디지털로 열어나가는 **새로운 금융**  
모두의 내일을 키워가는 **함께하는 금융**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금융  
**부산은행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가 5,000원



9 771976 974008

ISSN 1976-9741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금융 **BNK 부산은행**